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머 리 말

지금으로부터 22년전 평양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삼천리강산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도도한 시대의 흐름속에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운동에서 세계를 놀래운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을 마련하였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아로새겨져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통일을 마중가는 환희로 가슴부풀었고 세인이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평하였던 6.15시대!

격정의 그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

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드시여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세대를 이어 현명하게 이끌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심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이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북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합이 실현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다.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그 어떤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는 더우기 아니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정녕 겨레의 통일운동사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편집부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사에 금문자로 정히 새겨놓고 온 겨레가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서를 내놓는다.

주체111(2022)년 2월

차 례

1. 자주통일의 려명을 불러

1) 불변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 9

거듭 굳히신 통일의지 …… 9
판문점에서의 선언 …… 14

2) 겨레가 공감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 …… 22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 22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 …… 30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 39

3) 도도히 굽이쳐간 통일의 대하 …… 51

특색있게 진행된 범민족대회들 …… 51
3자련대가 실현된 통일대축전으로 …… 61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 71

2.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여시여

1) 새 세기 통일리정표를 마련하시여 …… 85

애국애족의 결단 …… 85
자주통일의 리정표—6.15북남공동선언 …… 92
남녘땅에 휘몰아친 《**김정일**열풍》 …… 108

2) 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위하여 …… 117

사라진 비방중상 …… 117
언론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 124
돌아온 통일애국투사들 …… 133
남녘땅에 퍼져간 송이버섯향기 …… 141

3)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 147

통일,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 147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 …… 158
끊어진 지맥을 하나로 잇도록 …… 169
통일기 함께 날리며 …… 178
거족적통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 191
온 겨레가 부른 《아리랑》 …… 201

3.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1) 평화번영의 진로 밝힌 력사적사변 …… 215

2) 온 겨레를 평화번영과 단합실현에로 …… 225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 225
서울에 나간 특사조의방문단 …… 238
변함없이 안겨주신 믿음 …… 244

1. 자주통일의 려명을 불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김 정 은

1) 불변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 9
거듭 굳히신 통일의지 ····· 9
판문점에서의 선언 ····· 14

2) 겨레가 공감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 ····· 22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 22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 ····· 30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 39

3) 도도히 굽이쳐간 통일의 대하 ····· 51
특색있게 진행된 범민족대회들 ····· 51
3자련대가 실현된 통일대축전으로 ····· 61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 71

1) 불변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거듭 굳히신 통일의지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같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진채 장장 70여년세월을 보내고있는 민족은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한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겨레가 겪고있는 분렬의 아픔을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어느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력사적위업이시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야말로 민족지상의 과업이고 자신께서 지니신 절대의 사명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조국통일과 련관시켜보시고 통일실현에 복종시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의 나날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중대보도가 세상에 아직 알려지기 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으신 상실의 아픔이 그 누구보다도 크시였지만 그것을 애써 누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조용히 찾으시였다.

너무도 억이 막히고 너무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절절하신 음성으로 그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문건을 보시고 1994년 7월 7일 날자와 존함을 활달한 필체로 쓰신것이 마지막 비준문건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준하여주신 귀중한 문건을 잘 보관하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 문건으로 말하면 그해 7월말 평양에서 열리게 되여있었던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사실 그때 민족분렬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온 겨레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 부풀어있었다.

우리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언론들에서

는 《앞으로 주석님께서 서울에 나오시면 아마 500만명이상이 연도에 떨쳐나서 열렬히 환영하게 될것이며 그때 주석님께서 하시는 연설을 30분동안만 방송으로 생중계하면 몇달안으로 통일될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왔다. 해외동포들도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령도에 의해 분단의 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민족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것이다.》라고 격정을 터친 사실들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실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는듯하였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보름남짓이 남겨놓고있던 7월 7일 이른 새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밤을 꼬박 지새우신데 이어 아침산책시간마저 바쳐가시며 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마주하시고 자자구구에 담겨진 세세한 의미까지 깊이 헤아려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마침내 만족하신 심정으로 문건에 한자한자 힘을 주어 이렇게 새겨넣으시였다.

《김 일 성

1994. 7. 7.》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력사적문건을 잘 보관할데 대하여 당부하신것이였다.

그이의 당부에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을 기어이 실현하실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운명과 전도를 두고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그이의 심중에는 금방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환희와 기대감에 젖어있던 겨레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그런데 뜻밖에 당한 민족의 대국상으로 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전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였으니 그로부터 오는 좌절과 실망이 얼마나 클것인가 하는 생각이 아프게 갈마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조국통일념원과 겨레의 절절한 소망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으실 웅지를 지니시고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중대보도가 나간 7월 9일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으로 하여 손맥을 놓고 있던 일군들에게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일단 연기할데 대한 서한을 남측당국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7월 9일과 1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11일에 서한을 보낼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뜻은 남측에 공식적으로 통고되게 되였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연기조치!

이는 최고위급회담의 유효성을 천명하는 애국애족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중대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1994년 10월 16일이였다.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거행된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자신의 철석의 통일의지를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과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다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시였지만 통일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셨다고 하시고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

을 꽃피워야 합니다.》

수령님의 뜻을 기어이 꽃피워야 한다!

일군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가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변의 의지가 구절구절 담겨져있는 말씀들을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의 앞길에 비운이 드리워졌던 민족대국상의 나날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유효성을 천명하도록 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의지를 거듭 굳히신것은 통일에 대한 신심을 잃고 주저앉을번하였던 우리 겨레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억센 기둥으로 되였다.

판문점에서의 선언

조국통일은 최대의 애국이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민족대국상의 나날 공화국의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외세의 부추김속에 남조선당국은 비보를 알리는 공화국의 중대보도가 발표된지 30분도 못되여 군대와 경찰에 《특별경계령》과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수많은 경찰을 내몰아 대학들에 꾸려진 분향소들을 들부시였을뿐 아니라 북행길에 오른 조문단성원들을 체포구속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민족의 대국상과 관련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은 조전과 화환을 보내왔으며 자국주재 공화국대표부를 조의방문하고있었다.

애도기간 세계 120여개 나라에서 7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여 특집을 하였으며 서방의 고위정객들도 조의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때 벌어진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인 탄압책동은 북남최고위급회담개최를 약속하였던 동족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였고 반통일적인 배신행위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간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를 구속한데 이어 사법처리하겠다며 악을 써댔다. 《국회》에서는 《남북협력동결》, 《인도주의사업중단》 등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골자로 하는 《남북폐쇄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 북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환경에서도 범민족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 애국세력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러던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이날은 일요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이른새벽 판문점으로 향하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날로 악랄해지는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수많은 난관이 겹쌓이던 때였다.

더우기 그때로 말하면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였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뜨렸을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인간의 존엄높은 삶을 향유하는가 아니면 굴복하여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순종하는가 하던 그 엄혹한 시기 어찌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아가시는지 사람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그 옛날 널문을 단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있다고 하여 그 이름도 판문점이라 불리우며 한적하였던 시골.

이곳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은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라고 자인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판문점은 적아 쌍방의 총과 총이 맞부딪치고 항상 첨예한 대결기운이 서려있는 최대열점지역으로, 분렬의 상징으로 되여왔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판문점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가 모셔져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조국통일의지가 얼마나 투철하고 통일열망이 얼마나 뜨거우신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통일친필비로 향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나라의 허리를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분계선의 철조망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본래의 하나된 모습으로 반드시 이어놓아야 한다는 결심이 고패치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통일친필비앞에 이르시였다.

안개자욱한 둔덕에 피눈물의 해 1994년을 의미하여 비돌의 총너비 9.4m,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력사의 날인 7월 7일을 뜻하여 비문판의 너비 7.7m의 친필비가 뜻깊은 사연을 말하는듯 숭엄하게 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언할수 없는 감회를 안으시고

친필비앞에 서시였다.

젖빛안개에 실려온듯 고요가 흐르는 정적속에 그이께서는 한동안 친필비너머 하늘가 먼곳을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비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친필글발에서 이윽토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교한 목란꽃장식부분 웃단에 새긴 해석비문도 한자한자 보아주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로고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운동사와 후세에 길이 전하려고 그 친필사적을 화강석에 새겨 여기 판문점에 비로 세웠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력사와 민족앞에 길이 전해가도록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울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러시고 친필비의 형태도안으로부터 해설문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며 친필비건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1995년 8월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그이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기념비로, 통일의 상징으로 건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억에 잠겨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려는 념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모여 통일행사를 벌리는 이곳 판문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였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분렬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삼천리강산을 안겨주시려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함축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화강석비돌에 살아 움직이는듯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바라보시면서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친필비가 담고있는 거대한 의미도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이렇게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기울여오신 로고의 낮과 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하시였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원칙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내놓으면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생이였다고 할수 있다. …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선언하시듯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분렬의 장벽을 기어이 걷어버리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강산을 물려주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의 장엄한 선언은 판문점을 넘어 온 세계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소식은 전례없는 충격을 일으키며 온 누리에 퍼져나갔다.

세계의 주요통신, 방송,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그 소식을 전하였다.

남조선의 신문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을 널리 보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신 력사적쾌거》로 된다고 하였다.

1950년대에 미국이 패배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력사의 땅 판문점에 거연히 서시여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를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겨레는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 용기를 가다듬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서의 판문점의 력사에 통일의 새 년륜이 새겨지게 한 민족사적사변이였다.

2) 겨레가 공감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어떠한 투쟁에서나 선결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 승리적 전진을 담보해주는 옳바른 사상과 로선의 제시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면 원칙으로 되고 강령으로 되며 방안으로 되는 통일헌장과 정치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제도에서 수십년동안 서로 다른 리념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하고 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1990년대 중반기의 변화된 환경은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해나갈수 있는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집대

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사상과 로선을 밝혀주시는것으로 화답해나서시였다.

이미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올해 8월 15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년상을 지낸 후 처음으로 맞는 해방기념일인것만큼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종합집대성화하고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립장을 천명하자고 한다. …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으신 지울수 없는 아픔을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겨내시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지침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 52돐을 앞둔 주체86(1997)년 8월 4일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애국애족의 철리가 담겨져있는 로작의 글줄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

니라 기어이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였으며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쳐오신 수령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 조국의 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위력한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전진하고있는것은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에 대하여 총괄하시면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새롭게 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라는데 대하여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나서 이렇게 정식화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고,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

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고 하시였다.

파란과 곡절많은 통일운동사에 승리의 기치로 휘날리게 된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식화!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추호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실현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과 의지의 선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통일의 길에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공적과 령도업적이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유산으로, 튼튼한 밑천으로 길이 빛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식화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최고정화이며 민족의 진로, 통일의 활로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구현한 조국통일의 전략적방침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어떤 정세와 어떤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갈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표명하시면서 그 의지,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로선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

특히 그이께서는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직접적담당자는 오직 우리 민족자신이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투쟁을 벌려나가자면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그래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면하여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통일문제, 민족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진로를 밝힌 새로운 조국통일총서로서 분렬의 어둠을 헤가르는 통일의 밝은 횃불이였다.

온 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작사상대로만 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리고 통일의 날도 반드시 다가올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크나큰 용기를 새롭게 안

겨주는 애국애족의 횃불》,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미국 하바드대학 극동공산주의운동권담당 고급연구원은 1997년 8월 30일 어느 한 방송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 북조선령도자가 얼마나 강한 사회주의고수론자이고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것은 … 최근 광복절 52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보아도 알수 있다. 그는 조선반도의 통일은 오직 조선반도의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진지하게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조국통일사상과 풍부한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고야말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와 철석의 신념이 어려있는 통일정책선언이였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철리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계급과 계층이 다 참여하는 전 민족적인 위업이며 이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이룩될수 있다.

그래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이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내부에는 오랜 세월 통일애국력량과 반통일매국세력, 민주력량과 반민주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국면이 조성되여왔다. 여기에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민족분렬책동과 반통일세력들의 민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반석같은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수많은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모두를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한자한자 작성하여 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시는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여실히 확증된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합의 사상과 그 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 경험을 고수하고 계승하여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통일하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였다.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다. 비록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것이다.

이런 웅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전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20세기도 저물어가던무렵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한층 강화되고있던 1998년 2월 남조선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앉았다.

통일을 갈망해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정권》교체와 더불어 력대 통치배들의 동족대결정책이 화해정책으로 바뀌여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시고 그해 2월초 공화국정당, 단체 련합회의를 열고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평양에서는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화국정당, 단체 련합회의가 열리였다.

련합회의에서는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새로 들어앉은 남측당국이 이전 독재《정권》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새 출발의 용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들과 손잡고 함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대단합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그러나 련합회의제의가 있은 때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났지만 남조선에 새로 들어앉은 《정권》은 구태의연하게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만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과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민족대단결로선을 제시하시여 민족대단합의 새 장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맞으며 진행된 중앙연구토론회에 몸소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였다.

이 서한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고 현시기 민족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또 하나의 민족대단결총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시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고 그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주신데 이어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론술하시였다.

그러시고 바로 이러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심화발전시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는것,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것,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에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사상정신적기초, 그 실현을 위해 나서는 요구와 과업,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민족문제의 본질과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의 력사적교훈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민족자주를 민족대단결의 근본원

칙으로 다시금 확정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이야말로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며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것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조건에서 온 민족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단결의 리념은 바로 애국애족과 조국통일이라는것을 철의 론리로 밝히시였다.

그러시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하시였다.

이와 함께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거족적인 투쟁으로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서와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가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공동행동을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대단결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함께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서 출발하여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리해관계나 지역적리익보다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이다.

또한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민족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대강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가지는 무한한 생명력과 생활력, 지대한 무게가 있다.

투철한 민족자주의 원칙과 열렬한 애국애족의 리념,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라는 강렬한 통일의지로 일관된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고 하신것은 그이의 통일의지, 민족대단결의지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거리들에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민족이 단결할 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될것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민족관이며 애국관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전민족대단결사상은 가장 현명한 통일방안》 등의 내용으로 된 벽신문들이 나붙어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은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나가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 신념을 더 깊이 간직하였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주의의 참모습을 찾아주시여 민족주의가 모든 민족성원들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추동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되게 하신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고수하며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하지만 지난 시기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의 사상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할데 대한 중대한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2월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말씀들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종래의 그릇된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주의의 본질과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 자주적발전에서 노는 의의와 역

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민족주의의 참다운 모습을 찾아주고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기치를 마련해주시였다.

무릇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과 배치되는 부르죠아사상으로 오래동안 인식되여왔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문제를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라고 그 가치와 성격을 정당하게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시말하여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주의의 애국적성격을 해명하시면서 깊은 주의를 돌리신것은 그 발생과 그것이 매국배족적인 사상인것처럼 오도되게 된 경위, 우리 민족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논 진보적역할 등에 대한 문제였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전 력사적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명할수 있는 문제였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따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발생하였다.

민족의 형성시기는 민족마다 다르지만 매개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

성되고 공고화된 사회적집단으로서 여러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민족을 떠나서 민족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민족을 이루는 계급, 계층은 그들의 각이한 사회경제적처지로부터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옹호고수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 대해서는 민족성원들이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진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특성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지향하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심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민족성원들의 이러한 사상감정과 심리를 반영한것이 민족주의라고 보시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몰락의 비탈길로 굴러내려가고있던 봉건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외적으로 곡절과 재난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력사무대에 출현한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있을 때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한것은 력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주의의 진보성에 대하여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 애국애족의 사상이라는데 민족주의의 진보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형성발전과 함께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생한 민족주의가 지난 시기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그릇되게 인식되게 된 리유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계선을 명백히 갈라놓으시고 민족주의의 진보성과 애국애족적성격을 해명하시였다.

봉건을 반대하는 민족운동시기에 신흥부르죠아지들이 민족주의의 기치를 들고 그 선두에 섰던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에는 봉건을 반대하는데서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죠아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신흥부르죠아지가 든 민족주의의 기치가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는것으로 되였다.

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한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부르죠아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결국 부르죠아계급이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민족적리익으로 위장하여 민족주의를 계급적지배를 실현하는 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함으로써 민족주의는 사람들속에서 민족의 리익과 배치되는 부르죠아사상으로 인식되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선행리론들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로동계급의 선행리론가들은 당시 사회주의운동에서 기본문제로 나섰던 전 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민족문제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더우기 부르죠아민족주의가 사회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치고있었던 관계로 민족주의를 반사회주의적사상조류로 보았다.

각국의 부르죠아지가 민족적리익의 옹호자로 자처하고있는 조건에서 전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국부르죠아계급이 표방하고있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감언리설에 속아넘어간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전 세계적인 혁명위업을 말아먹을수 있었다.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부르죠아적지배밑에 있는 모국이 결코 조국으로 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량자가운데서 반드시 국제주의, 사회주의편에 서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견지로부터 로동계급의 선행리론가들은 로동계급이 이른바 애국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히는것을 경계하였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량자속에서 언제나 민족주의적편견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할것을 제기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르죠아계급이 민족주의를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민족적리익으로 위장하여 계급적지배를 실현하는 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였다고 하여 민족주의를 부르죠아민족주의에 귀착시킨 바로 여기에서 심중한 문제점을 포착하시고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근본차이를 해명하시였다.

신흥부르죠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였다고 보는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견해였다.

물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가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되였던것만은 사실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발전하는것을 두려워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저애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애썼다.

결국 그들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서방렬강들의 앞잡이로 전

락되거나 정치투쟁을 포기하고 민족개량주의를 부르짖으며 로골적으로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일본이나 미국은 다같이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의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였다.

그러다가도 그들가운데서 정세를 통찰하고 외세에게 복무하기를 거부하는 량심적인 사람이 나오면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를 박해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해나섰던 려운형,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의 사촉을 받는 테로분자들에 의해 백주에 암살당한 사실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족주의가 지배계급의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반민족적인 사상이라고 볼수는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주의가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민족운동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데 대하여 특히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반일민족해방운동에 남긴 공적을 응당하게 평가하시고 참다운 민족주의의 진보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강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민족주의자들이 걸어온 애국애족의 토양우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였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한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민족주의와 부르죠아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와의 계선을 명백히 하시고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애국애족의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정당한 평가를 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지난날 버림받고 배척당하던 민족주의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민족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배척할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민족대단결의 지침이 마련되였다.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량립될수 없는 사상인것처럼 여기면서 민족주의를 배척하였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의 쐐기를 박으려고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사이에 넘을수 없는 심연이 있는것처럼 외곡하고있다.

그러나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하여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는것이 민족주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시종일관한 립장이였다.

그것은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그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로 된다고 보시였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는 사람이 애국자로 될수 없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자 곧 민족에 대한 사랑이며 민족에 대한 사랑이자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민족주의의 리념적기초가 애국애족인것만큼 그것을 반대하는것은 곧 애국주의를 반대하는것으로 된다.

공산주의도 역시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온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에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여기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련합할수 있는 사상적기초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인것만큼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대치시키고 민족주의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신것은 이러한 리유에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가 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시고 광폭정치로 민족의 각계층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그들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해 확신성있게 투쟁해오신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성업을 이룩할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시였기때문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은 지난날 반민족, 반공의 선두에 서있던 사람들의 인생전환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민족대단결사상,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며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

로 된다는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고 보시는 절세의 위인의 위대성에 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이 터친 찬탄의 목소리는 2011년 7월 12일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에 실렸던 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가 그이께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론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그렇게 손을 잡으려 한것도 또 현정은회장뿐 아니라 그 딸인 정지이씨까지도 가까이 불러 아버지 정몽헌회장의 뜻을 이어, 대를 이어가며 민족을 위한 기업인이 되라고 격려했던것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주의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과거 공산주의리론에서는 없는 새로운 개념인 사람의 자주성에 대한 믿음때문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건, 어느 당파에 속했건, 정견과 신앙이 어떠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다같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일관한 립장이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애국애족의 정신, 민족자주정신이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주의의 참다운 모습을 찾아주신것은 세계를 휩쓰는 민족말살의 어지러운 흐름과 광풍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할뿐 아니라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애국의 길을 환히 펼쳐주신 거대한 공적으로 된다.

3) 도도히 굽이쳐간 통일의 대하

특색있게 진행된 범민족대회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의 주체적힘에 의거하는 겨족적인 통일운동에 의하여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겨레에게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들이 특색있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통일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치도록 하시였다.

범민족대회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력량의 마음과 뜻을 모은 전 민족적인 회합으로서 조국해방 45돐이 되던 주체79(1990)년 8월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에서는 첫 대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내오기로 하였다.

범민련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

고 그들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로, 통일운동을 이끌어나가는 민간통일운동의 조직체로 되였다.

범민련을 내온것은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운동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해마다 민족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과시하며 범민족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해오던 우리 겨레는 1994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떻게 범민족대회를 진행하겠는가고 하면서 제5차 범민족대회를 그만두는것이 마땅한 도리로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심장에 새겨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국상을 당한 환경속에서도 제5차 범민족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원래 제5차 범민족대회는 1994년 5월 제2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합의한대로 8.15에 기본대회를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의 주관밑에 서울에서 하면서도 평양과 도꾜에서도 각기 대회를 진행하며 서로 대표단을 교환, 파견하기로 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이번에 진행하는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받들어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아직도 방방곡곡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분이 넘치던 그때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뿐 아니라 특색있게 크게 조직할데 대한 그이의 말씀은 주저앉으려던 일군들을 안아일으키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제5차 범민족대회를 계획대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진행하게 된다는것과 우리측이 해외측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5명의 대표들을 8월 13일에 일본 도꾜로 보내며 8월 14일에는 서울대회에 참가할 10명의 북측대표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서울로 파견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알렸다.

8월 13일 평양에서 제5차 범민족대회의 막이 올랐다.

겨레의 통일열망을 안고 모여온 수많은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것을 다짐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대회기간 조국통일대토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단, 결의모임형식의 《통일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한편 8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범

민련 북측본부대표단이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를 《리적행위》로 범죄시하고 대회관련자들을 체포구속하면서 탄압에 광분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나가려는 북측대표단의 판문점통과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섰다.

사람들은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반통일적이며 위선적인 처사를 두고 누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며 누가 민족의 분렬을 꾀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고 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해온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서울대학교 정문앞에 바리케드를 쌓고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면서 제5차 범민족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도꾜에서도 제5차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피눈물속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온 겨레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삼천리강토에 통일기운을 북돋아주었다.

1995년은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해에 겨레의 통일기운을 더욱 고조

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새해의 첫날 해당 부문의 몇몇 일군들을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나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기회에 일군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을 계기로 전 민족적범위에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1995년 1월하순 평양에서 공화국정당, 단체 련합회의가 진행되고 호소문이 채택발표되였다.

호소문에서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올해의 8.15는 통일조국창조의 일대 분수령이 된다고 하면서 이 뜻깊은 날에 판문점에서 해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해방 50돐을 전 민족적으로 성대히 경축할것과 여기에서 해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할것을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온 겨레가 친북, 친남을 가리지 말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 할것없이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공동의 리념, 통일애국

의 뜻으로 굳게 단합하여 조국해방 50돐을 공동으로 경축하며 대민족회의를 열고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할 전 민족적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것을 호소하였다.

련합회의의 호소는 해내외동포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를 비롯한 많은 해외동포조직들과 인사들이 공화국 련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도 《북의 대민족회의소집제안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애국애족적이고 시기적절한 발기이다.》, 《겨레의 통일의사를 민족적리익에 맞게 구현하자면 반드시 대민족회의를 열어 통일방도에 대해서 협의하고 확정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의 대민족회의소집제안을 지지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8.15통일대축전에 대한 겨레의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3월초 공화국정당, 단체 대표협의회가 열리고 조국해방 50돐경축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관해나갈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여러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준비모임을 가진데 이어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였으며 해외동포들도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던 1995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민족통일대축전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조국통일대축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조국해방 50돐에 즈음하여 진행하는 축전인것만큼 종전 축전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특색있게 진행하며 검소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게 높은 수준에서 빛이 나게 조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대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날의 말씀은 민족통일대축전준비와 진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지침이였다.

7월중순 조국해방 50돐 북, 남, 해외준비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데 대한 문제와 민족통일대축전의 3자공동행사는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하고 그밖의 행사들은 북, 남, 해외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지역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이 명기된 공동합의문이 채택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정력적이며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이 성과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였다.

1995년 8월 13일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지향을 안고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향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이 시작되였다.

다음날에는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행진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대회에 사선을 헤치고 달려온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통일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8월 15일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은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통일기운으로 끓어번지였다.

판문각 앞마당에서는 성대한 개막행사가 진행되였고 이어 통일각에서는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기 위한 북, 남, 해외 정당, 단체들의 대민족회의가 열리였다.

대민족회의에서는 북측대표와 해외측대표의 기조보고들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하여야 할 과제가 급선무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은 통일운동앞에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밝혀주고 호상련대와 공동행동의 기초를 마련해줄것이며 통일운동대렬의 단합을 강화하고 운동의 추진력을 배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반통일분렬주의자들이 내들고있는 《제도통일》론의 부당성, 반동성을 까밝히고 우리 조국의 통일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민족회의에서는 련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고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판문점의 통일각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들에 이어 판문점에서는 범청학련 공동연단, 조국해방 50돐경축 통일음악회, 북, 남, 해외 통일미술전시회, 범청학련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여 통일열기를 돋구어주었다.

이처럼 특색있게 진행된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은 련방제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고 내외에 엄숙

히 선포한 력사적인 축전이였으며 7천만겨레의 뜨거운 통일지향과 의지를 과시하고 통일의 세찬 열풍을 일으켜 통일운동에 활력을 부어준 민족적회합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진행된 통일운동들도 온 겨레의 통일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 전 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투쟁을 보다 활성화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1997년 8월 평양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7범민족회의가 진행되여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온 민족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한 범민련단체들의 당면과업이 토의확정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1998년 8.15통일대축전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민족대단결5대방침관철 결의대회와 동포단합대회에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판문점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좌절과 답보를 모르고 끊임없는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며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강화발전되게 된것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위

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3자련대가 실현된 통일대축전으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도 해마다 그 내용에서나 규모, 형식에서 더욱 발전해나갔다.

1999년에는 북과 남, 해외 3자련대가 실현된 범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여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이 내외에 다시한번 과시되게 되였으며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갔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둔 1999년의 통일대축전은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이해의 통일대축전이 1990년대 마지막해의 통일대축전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절박성과 2000년대의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북돋아줄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또한 이해의 범민족대회는 그것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번째로 진행되는 뜻깊은 대회였다.

종래에 진행된 범민족대회들은 남측대표들이 참가할수 없는 것으로 하여 3자련대가 실현된 대회로 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 통일세력의 3자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8(1999)년 새해의 첫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올해에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을 불러일으키며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었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적대세력들은 침략적인 《작전계획 5027》을 버젓이 공개하여 공화국을 자극하였는가 하면 이른바 《지하핵시설의혹》과 《미싸일문제》, 《생화학무기문제》 등을 들고나와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켰다.

여기에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합세하여 전쟁준비를 로골적으로 다그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온 겨레가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이였다.

새해 정초부터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15통일대축전을 계기로 통일세력의 3자련대련합을 실현하실 구상을 펼치시고 그 준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와 해외만 모여서 하는 범민족대회는 절반짜리 대회이며 북과 남, 해외가 다 모여서 해야 옹근대회가 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8.15에 즈음하여 진행하는 제10차 범민족대회가 명실공히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의 대회가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의 명칭부터 3자련대의 요구에 맞게 바로잡아주시였다.

당시 대회를 준비하던 일군들은 명칭문제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첫 범민족대회가 열렸던 때로부터 10번째가 되는 해에 진행되는 대회이고 범민련이 주도하는 행사라는것만 생각하다보니 명칭을 전례대로 제10차 범민족대회로만 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명칭으로는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다 망라시킬수 없으며 더우기 범민련밖의 통일운동단체들을 축전에 참가시킬수 없다고 보시고 대회의 명칭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략칭 범민족통일대축전)로 정해주시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여러 통일애국단체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여 취해주신 정당한 조치였다.

대회의 명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뿐 아니라 남조선의 전국련합, 민주로총과 같은 범민련밖의 단체 대표들도 대회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통일운동단체들이 망라되여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하는 하나의 축전행사를 거행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의 민주로총대표들의 평양방문을 실현시키고 북남로동자들의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1999년 3월초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과 남조선의 민주로총대표들사이에 북과 남의 로동자축구대회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다.

접촉에서는 북과 남의 로동계급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며 당면하여 통일념원 북남로동자축구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4월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 실무접촉을 가질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오는 민주로총대표들의 체류기간 동포애의 정으로 잘 대해주고 그들이 제기한 북남로동자축구경기문제도 성사시켜 북과 남의 로동계급의 래왕을 실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민주로총대표단의 평양방문이 실현되였다.

체류기간 량측대표들사이에는 통일념원 북남로동자축구대회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8월 10일과 이듬해 8월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북남로동자축구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였다.

공동합의문의 채택은 북남로동자들의 접촉과 래왕, 련대를 성사시켜 그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선봉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애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 참가하는 거족적인 통일행사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회에 남조선의 기본통일운동단체들을 다 참가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드디여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이 평양의 축전장으로 모여오기 시작하였다.

축전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련합, 《한총련》대표들이 왔다. 그리고 민주로총대표와 민주로총 로동자통일축구선수단도 참가하게 되였다.

축전에는 전례없이 많은 해외동포들도 참가하였는데 일본, 중국, 로씨야, 유럽,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해외동포대표들과 체류중에 있던 동포들을 포함하여 1 0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범민족통일대축전의 개막을 앞둔 바쁘신 속에서도 행사준비에 자그마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8월 어느날 한 일군에게 금년도 8.15통일대축전 행사에 처음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들, 전국련합 대표들,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가 참가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라고, 거기에 남조선의 민주로총대표들과 민주로총 로동자통일축구선수단까지 오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범민련의 북, 남,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련대련합을 이루고 광범한 통일세력이 참가하는 이번의 8.15통일대축전이야말로 나라가 분렬된 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범민족적인 대정치문화체육축전이라고 기쁨어린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생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련운동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시기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실현되게 된것이 너무 기쁘시여 하시는 이 말씀에 일군은 뜨거운것을 금할수 없었다.

범민족대회의 지위와 의의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행사를 잘 조직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으며 8.15통일대축전행사정형을 크게 보도하여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의 위용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1999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과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남측대표 43명을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의 70여개 정당, 단체대표 2 500여명과 수많은 외국인들도 참가하였다.

8월 13일 대회개막에 앞서 대표들은 전민족대단결결의대회를 가지고 이번 범민족통일대축전을 북, 남, 해외의 3자련대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길 결의를 다지였다.

이어 평양의 모란봉기슭 **김일성**경기장에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막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고 북남로동자련대련합 통일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8월 15일에는 판문점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자련합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고 통일각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가 진행되였다.

8월 13일에 개막된 범민족통일대축전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착공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3자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 및 체육행사, 조국통일상 수여식, 북남로동자축구경기 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정치, 문화, 체육행사들로 16일까지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어느 행사에서나 겨레의 통일의지가 뜨겁게 분출되였다.

이처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사상에 맞게 독특한 형식과 특색있는 행사들로 이채를 띠면서 전례없이 성대히 진행된 이 통일대축전은 거기에 참가한 북, 남, 해외조직 단체대표들의 규모와 토의확정한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으로 보나 행사형식의 다양성으로 보나 반세기 통일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정치축전이였다.

이 대회가 준비되고 진행되던 기간은 미국의 침략책동으로 내외의 정세가 매우 긴장한 때였다.

나라는 있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탓에 발칸반도와 중동지역에서는 미국의 미싸일과 폭탄들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적들이 무참히 파괴되고있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도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불비》를 내릴수 없었다.

조선에는 절세의 위인께서 다져오신 강력한 총대의 위력과

핵무기보다 위력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었다.

이 힘이 있어 조선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모두 모여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것을 확약하는 통일대잔치도 성과적으로 가질수 있었던것이다.

남조선에서도 당국의 《원천봉쇄》책동을 박차고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한총련》, 전국련합을 비롯한 통일애국민주단체 성원들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진행하였다.

수천명의 경찰이 포위한 속에서도 행사참가자들은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와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을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통일의지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통일노래한마당행사 등 여러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9년 8월 15일 통일대축전행사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이번 축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범민련운동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음으로써 우리 시대에 와서 3자련대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남조선의 민주로총 로동자통일축구선수단까지

8.15통일대축전 개막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열기를 더욱 높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에서 온 대표들과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통일대축전행사들에 참가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빛나게 실현된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대정치축전으로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렬사에서 처음 있는 격동적인 일들을 목격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였다.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하나하나의 시내물들이 모여 대하를 이룬다.

비록 흐린 물이라도 대하로 흘러들면 청수가 되여 도도한 흐름을 더해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 삶을 빛내여주신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 방금 도착한 비행기에서 나이든 한 녀인이 내리였다.

그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온 박용길녀사였다.

고령의 그가 자기의 평양방문으로 하여 신상에 어떤 변고가 닥쳐올지 모르는바 아니였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남편인 문익환목사가 걸었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온 그였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자기를 걱정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남쪽에서 누군가 한사람 **김일성**주석님에게 조문하러 갔다는것이 민족된 도리이고 앞으로 남북겨레의 만남과 화해에 꼭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고나면 영영 기회가 없어지고말아. 아버지는 판문점으로 돌아오고싶어했는데 내가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 원을 풀어드릴 참이야.》

녀사는 문익환목사를 보살펴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바라던대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평양에 도착하였던것이다.

그는 도착성명에서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다녀온 후 긴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김일성**주석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신다는 소식을 여러번 들어 알고있다는것, 그런데 **김일성**주석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통일은 이렇게 심장이 터지는 어려운 일인가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편 문익환목사를 통일제단에 바치고 1년반을 보내면서 너무도 뜻밖에 나라의 어버이를 잃은 북녘의 동포들과 비통한 심정을 같이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곳

에 달려왔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7월 8일 소복차림을 한 녀사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사에게 자신은 녀사께서 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의 령전에 인사를 올리기 위해 신상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녀사가 문익환선생과 같이 수령님의 령전에 인사를 올리는 심정으로 선생이 수령님을 만나뵈올 때 꼈던 안경과 반지를 몸에 소중히 품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감동되였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면서 자신께서는 녀사가 혼자 온것이 아니라 문익환선생과 함께 왔으며 두분이 수령님께 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인사를 안고 온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간 문익환목사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애국적지조가 높고 절개가 굳은 통일애국투사를 잃은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문익환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가슴아파하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에 대하여 감명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당국이 평양을 방문하였던 녀사가 돌아오면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신상에 대하여 걱정해주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누구보다 아픈 가슴을 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로를 받으실 대신 오히려 떠나간 남편을 잊지 않으시고 또 자기의 신변에 미칠 영향까지 념려해주시니 녀사는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날 녀사와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일일이 보살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그의 귀환경로에 대해 깊이 마음쓰시면서 3국을 경유하여 남조선으로 돌아가도록 대책도 취해주시였다.

그래도 녀사가 조국통일을 위해 꼭 판문점으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는 북남관계가 매우 팽팽한 때였지만 남조선당국에 녀사를 구속탄압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공식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박용길녀사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은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왔을 때 그가 안전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귀환경로를 두고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그대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용길녀사가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에 돌아간 다음에도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 박해를 가하는 당국의 반인륜적, 반통일적인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그를 하

루빨리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남조선당국의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성명과 담화들이 련일 발표되였으며 기자회견과 규탄모임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박용길녀사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은 공화국정당, 사회단체 련합회의와 박용길녀사구원투쟁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한층 고조되였다.

남조선당국은 날로 드높아가는 내외의 압력에 할수없이 그를 석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자기의 여생을 빛내이던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가족들에게 몸소 조전까지 보내주시였다.

박용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가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박용길녀사는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봄을 보지 못하고 우리곁을 애석하게 떠났지만 그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바친 애국의 넋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김 정 일

주체100(2011)년 9월 26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박용길녀사는 오늘도 《통일의 할머니》로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아있다.

절세의 위인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이 있어 정주영도 통일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그는 남조선의 현대그룹창업자, 명예회장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대재벌이였다.

《일찌기 기업으로 애국한다.》는 나름대로의 지조를 품은 그의 인생은 기업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그는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기업에 바치였다.

하지만 결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그는 생의 말년에 참다운 애국은 통일에 있다는 신념을 품고 인생전환을 하였다.

집권세력과 뜻이 다르다는 리유로 기업활동에서 각종 저애를 받고 지어 심한 정치적압력까지 받던 그는 마음이 저절로 오래전에 떠나온 북으로 향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가 드디여 용단을 내려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그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애국의 씨앗을 싹틔워준 계기로 되였다.

그는 그립던 고향에도 가보고 때로는 유명한 평양랭면을 들면서 그리고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금강산도 돌아보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온 민

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접하게 되였다.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지어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단합할것이라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로작을 통하여 받아안은 그는 마침내 통일애국의 걸음을 내짚을 용단을 내리였다.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비방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그의 마음속진정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을 자본의 축적과 기업의 확대, 개인의 치부를 위한데 바쳐온 그의 과거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이나마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바지하려는 그의 진정을 소중히 여기시여 공화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998년 6월 어느날 정주영명예회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현대그룹일행은 분렬의 장벽을 넘어 평양으로 왔다.

방문기간 그는 꿈에도 소원이였던 고향의 향취를 다시 맛볼수 있었고 친척들과의 감격적인 상봉도 할수 있었다.

체류기간 그와 일행은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고 풍치수려한 묘향산, 금강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으며 여러 경제분야에서 협력할데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민족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이를 한번만이라도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마음 속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번에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정주영일행을 만나주지 못해 안됐다고, 너무 할 일이 많아 좀처럼 짬을 낼수 없었다고 하시며 앞으로 한번 다시 오면 그때는 자신께서 꼭 만나주시겠다는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정주영과 그일행의 공화국방문소식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남조선잡지 《주간조선》에는 정주영명예회장이 자기의 방문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글이 특집으로 실렸다.

글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한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서 이번에 왔던분들을 오는 9월에 한분도 빠짐없이 다 초청하라고 하시였다는것을 크게 강조하며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을 표시하였다.

1998년 10월 어느날 그는 자기 기업의 뒤를 이을 아들을 비롯한 일행을 데리고 또다시 평양을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일생일대의 소망을 기어이 풀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0월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시간을 내시여 그와 일행을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 지난 6월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현지지도도중에 평양에 돌아오시여 자정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 자기들의 숙소를 찾아주신데 대해 일행은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업지대를 창설하는 문제, 체육분야에서 북과 남이 교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 해외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정주영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고무와 인정에 가슴이 후더워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헤여지기에 앞서 나이많은 정주영선생이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처럼 정주영은 위대한 장군님을 잠간만이라도 만나뵙고 자기가 운영하던 기업을 넘겨주게 될 아들을 그이앞에 내세워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가문의 가보로 물려주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을 모두 실현하게 되였다.

남조선에 돌아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던 일들을 긍지에 넘쳐 되새겨보며 마음속으로부터 우

러나오는 진정을 담아 그이를 《장군》이라고 존칭하였다.

남조선의 한 기자가 그에게 《북에 갔다오더니 변한것 아닌가? 왜 자꾸 장군님, 장군님 하는가?》고 물었을 때였다.

정주영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군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도 장군다운 장군은 **김정일**장군이 처음이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러한 그에 대하여 미국의 어느 한 방송까지도 《자본주의기업가 정주영이 **김정일**장군을 지성적이며 친절하고 례절바른 지도자라고 칭송한 발언은 그가 북조선지도자의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진실로 우러나온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직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 클린톤과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 페리로부터 면담요청을 받았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핑게로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정주영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당시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은 《외교관들과 정부관리들의 무조건적인 대미추종에 자존심이 상해왔는데 미국대통령의 면담요청마저 거절한 정명예회장의 주대는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하였다.

그의 이같은 행동은 이 세상 제일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은 행운아라는 높은 인간적, 민족적자존심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후 정주영과 그의 일행은 1999년 한해만도 세차례나 북행길을 다녀갔다.

정주영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기념촬영시에는 정주영선생이 불편해하니 앉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고 또 어느때에는 상한 관절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치료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하시며 귀중한 약재도 보내주시였다.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이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그였기에 인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반통일분자들의 온갖 압력과 회유를 물리치며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을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로환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조의표시를 잘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주시였다.

정주영선생의 유가족들에게

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사업에 기여한 정주영선생의 사망에 즈음하여 현대그룹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90(2001)년 3월 22일 평양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전을 보내신 다음날 조의대표단을 파견할데 대한 특별조치도 취해주시여 조의대표단이 서울로 나가게 되였다.

절세의 위인의 은정에 의해 어제는 정주영명예회장이 살아생전에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거쳐 공화국방문의 길에 올랐다면 그가 사망한 오늘에는 또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조의대표단이 고인을 추모하여 분렬의 장벽을 날아넘고있었다.

이 광경은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끝까지 믿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와 그이께서 펼치시는 애국애족의 정치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준 력사적화폭이였다.

진정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통일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치게 추동한 원동력이였고 활력소였다.

2.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여시여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김 정 은

1) 새 세기 통일리정표를 마련하시여 …… 85

애국애족의 결단 …… 85
자주통일의 리정표—6.15북남공동선언 …… 92
남녘땅에 휘몰아친 《김정일열풍》 …… 108

2) 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위하여 …… 117

사라진 비방중상 …… 117
언론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 124
돌아온 통일애국투사들 …… 133
남녘땅에 퍼져간 송이버섯향기 …… 141

3)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 147

통일,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 147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 …… 158
끊어진 지맥을 하나로 잇도록 …… 169
통일기 함께 날리며 …… 178
겨족적통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 191
온 겨레가 부른 《아리랑》 …… 201

1) 새 세기 통일리정표를 마련하시여

애국애족의 결단

2000년의 봄이 찾아왔다.

이해의 봄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예고해준 류다른 봄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빛나게 고수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더우기 망국에 이어 분렬의 년륜을 새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20세기의 민족적비운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번영의 새로운 민족사를 수놓으려는것이 2000년을 맞이한 우리 겨레의 열렬한 지향이고 념원이였다.

이무렵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도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략칭 범민족통일대축전)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

대가 실현됨으로써 통일운동이 전 민족적범위에서 더한층 조직화, 적극화되였다.

결과 애국세력과 반통일분렬세력사이의 력량관계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투쟁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대세의 흐름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집권상층들까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집권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실 애국애족의 결단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1월초 일군들에게 2000년 새해를 맞으며 신심드높이 일을 더 잘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2000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거창한 구상과 그에 대한 결단을 예고해주는 의미있는 말씀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2000년에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계속 강하게 들고나가야 하며 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 나라는 20세기초엽에 외세의 간섭과 사대매국노들의 외세의존으로 망했고 조국해방후에는 외세에 의하

여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가 분렬되여 민족적비운을 겪고있다고, 세계에는 우리 나라처럼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사는 민족이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자주이고 자주는 곧 통일이라는 사상을 더욱 강하게 들고나가야 한다고, 올해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 의의있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말씀들에는 뜻깊은 2000년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시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3월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였다.

이 땅의 천만산악을 품에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산!

우리 민족은 일찌기 여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인류력사의 가장 이른시기에 국가문명시대에 들어섰다.

하기에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사의 발상지,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불리워왔다.

세기를 두고 겨레의 마음속에 신령의 산으로 새겨져온 백두산은 우리 민족이 낳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의 천고밀림과 줄기줄기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불러오시고 이곳의 추녀낮은 귀틀집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일봉의 우뢰소리 드높이 천하를 떨치시던 그때로부터 더욱 찬연한 빛

을 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에 도착하신 그날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려쌓이기 시작하였다.

하얀 숫눈우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새겨가시듯 그이의 발자국이 찍혀졌다.

그것은 세상을 놀래울 력사적인 사변의 예고이며 의미심장한 출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깊은 사색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민족이 지지환영하던 1994년 여름과 같은 민족사적대경사를 성사시킬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지맥이 뻗어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과 뜨거운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조국통일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민족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렬민족으로 남아있는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가슴속에 박힌 분렬의 못을 뽑고 신음하는 조국의 아픔을 풀기 위한 일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세기가 넘는 분렬의 력사우에 서있는 민족의 절규이고 시대의 호소이며 해내외 모든 겨레의 한결같은 갈망이다.

그이의 사색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깊어만 갔다.

우리 혁명가들의 도량은 백두산처럼 크고 넓어야 한다. 대

해는 청류와 탁류를 가리지 않는다. 북남수뇌들이 만나 한 자리에 앉는다는것부터 이 나라의 새 력사를 빛나게 장식할 장거이다. 북남수뇌상봉이야말로 적대세력의 분렬책동을 산산이 부셔버릴 벼락이다. 지금이야말로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통일유훈을 실현해야 할 시기이다.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결단을 구상하시며 격동할 래일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모습은 북남최고위급회담이라는 대결단을 내리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눈보라치는 백두산지구에서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실 애국애족의 결단을 내리시였다.

그것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뜨거운 통일의지와 예지로 빛나는 사색,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한품에 안으시는 인덕과 도량이 낳은 위대한 결단이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 《통일한마음》(2002년 7월 23일)에는 《6.15공동선언이후의 통일정세와 조국통일실현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었다.

《6.15공동선언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산에서 잉태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태여났습니다. 7천만겨레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은 다른데서 잉태될수 없고 다른데서 태여

날수 없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산입니까? 단순한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민족의 상징이며 조국통일의 상징이 아닙니까?

6.15공동선언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잉태되고 평양에서 태여났으므로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북남간의 접촉이 여러 차례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간의 접촉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남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도록 하시였다.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통일의지, 애국애족의 결단에 의하여 4.8북남합의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김대중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방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사이에 력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가질것을 겨레앞에 확약한 4.8북남합의서의 발표는 새로운 자주통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첫 포성이였다.

북남합의서의 발표는 세상을 들었다놓았다.

남조선의 여야당과 경제, 사회, 시민, 로동계는 물론 군부까지도 앞을 다투어 합의서를 지지환영하는 립장들을 밝혔다.

합의서발표이후 남조선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북남수뇌회담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81%에 달했으며 북남수뇌회담이 《남북관계개선에 전기가 마련될것》이며 이로 하여 《통일이 더 빨리 올것》이라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북남합의서발표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반향도 컸다.

중국과 로씨야는 북남합의서를 지지환영하는 정부의 립장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도 합의서를 지지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족의 절박한 념원과 기대를 담은 7천만 해내외겨레들의 마음이 평양으로 달리였다. 력사적사변의 추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이목이 조선으로 쏠리였다.

자주통일의 리정표—6.15북남공동선언

겨레의 마음과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향하는 속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왔다.

우리 인민은 철석의 통일의지와 대해같은 도량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게 될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남조선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열풍이 일어번졌다.

서울의 경복궁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크게 모셔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6월 13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10여개 대학들에서는 새벽부터 공화국기와 조선반도지도를 내걸고 북남수뇌상봉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그 전날에는 서울북부 경기지역 하늘가에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비꼈었는데 그것을 본 서울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백두산의 쌍무지개가 서울에 보낸 통일의 징검다리》, 《래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는 하늘의 메쎄지》라고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인사들도 평양상봉을 환영하는

담화, 성명들을 련이어 발표했고 모임도 가지였다.

6월 13일 아침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민주당(당시)은 북남수뇌회담을 통하여 《55년의 불신과 대립의 력사를 뛰여넘어 민족사적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념원한다.》고 밝혔다. 극우보수정당인 《한나라당》(당시)까지도 대세에 눌리워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13일을 앞두고 서울에서 7천여명 시민들의 참가하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겨레대합창축제》가 열린것을 비롯하여 분계연선으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각지에서 경축행사들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평양에서 진행될 북남수뇌회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세계 각국들도 상봉날자가 다가오자 더욱 뜨거운 관심을 돌리였다. 당시 로마교황이였던 요한 바오로2세도 6월 11일 《전 세계인들과 함께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민족의 대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축하성명을 발표하였다.

55년의 년륜이 분렬의 아픔으로 새겨지고 겨레의 통일비원이 뭉게구름처럼 떠돌던 이 나라 삼천리에 통일의 희망으로 물결칠 력사의 순간이 다가왔다.

주체89(2000)년 6월 13일 오전 남조선당국자와 그일행이 탄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나오시였다.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는 그이를 우러러 군중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해빛같이 환하신 미소, 예지로 빛나는 안광, 당당함이 력력한 걸음새, 소탈함이 슴배인 수수한 잠바옷차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비행장에서 뜻밖에 뵙게 된 남조선기자들을 비롯한 일행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있다가 급기야 정신을 차리고 열렬한 박수를 터뜨렸다.

비행장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실황중계하던 남조선의 《KBS》 기자는 《조금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도착한다. 김영남위원장이 영접하게 된다.》고 말을 떼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오시는것을 보고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본사로부터 독촉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너무너무 예상을 뒤집어엎는 사변이 일어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며 격정에 넘쳐 평양상봉소식을 전하였다.

평양에 가면 누가 비행장에 마중나올지, 평양시민들이 자기를 환영할지, 수뇌회담이 성과를 거두겠는지 걱정하며 서울을 떠났던 남조선당국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 마중나오시였다는것을 알고 자리에서 움직일념을 못했다.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였다는 소식이 준 충격이 너무도 크고 예상을 초월한

것이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남조선당국자와 뜨겁게 포옹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어렵고 두려운 길을 용케 오셨다는 그이의 말씀에 당국자는 《국방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공항에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 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그를 승용차자리의 상석에 앉도록 하시고 자신께서는 그 옆자리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타신 승용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면서 60여만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환영일색으로 단장한 거리들을 지나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측의 예상은 물론 세계적인 의례관례를 깨뜨린것으로서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시간을 다투며 세계를 끓게 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서울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취재를 위하여 긴장하게 대형전광판을 지켜보던 남조선과 세계의 근 300개 언론사의 천여명에 달하는 기자들속에서는 누가 먼저랄것없이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수에 린색하기로 소문난 그들이였지만 그 력사적인 시각

모두 세차례, 처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을 때, 두번째는 그이께서 남조선당국자와 손을 맞잡으시였을 때, 세번째는 같은 차에 오르시는 상상밖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환호와 박수를 터뜨렸다.

세계의 언론들도 평양상봉소식을 특별실황중계하였으며 시간마다 중대긴급보도로 내보냈다.

세계 200여개 나라에 하루 24시간 정치보도를 제공하는 미국의 CNN TV방송은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력사는 이루어졌다.》는 의미있는 첫말로 평양상봉소식을 전 세계에 날리였다. 그러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비행장에까지 마중나온것은 예상치 못했던것이며 매우 긍정적인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그 의미까지 부여하였다.

프랑스, 도이췰란드,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도 자기들의 특파취재진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비행장영접소식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가장 눈부신 활약》이라고 전하였다.

우주공간은 력사적인 평양상봉소식을 전하는 전파로 뒤덮였다.

미국 부르킹스연구소의 한 객원연구원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비행장에 홀연히 나타나서 보여준 세련된 몸짓과 김대중에 대한 공손한 례의는 서방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했으며 스위스의 어느 한 신문 론설위원은 《평양지도자의 웃는 모습은 세계에 대해 누가 북을 무서워해야 하는가 반문하게 하는 매력있는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온 겨레와 인류의 가슴에 상상밖의 충격과 흠모열풍을 일으키며 숙소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그들일행과 함께 응접실에 들어가시여 남조선당국자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해 우리 인민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북남수뇌상봉소식에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에 감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국제관계사에는 무수한 수뇌회담들이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평양상봉의 첫막을 올린 영접행사처럼 온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례는 없었다.

순간을 찬란한 력사로 아로새기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바로 이런 력사의 창조자, 력사의 거인이시였다.

하지만 우리 겨레와 세계가 터쳐올린 격정과 환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날들인 14일과 15일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세인들이 터치는 경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6월 14일 위대한 장군님과 남조선당국자사이에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은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마주앉아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하는 력사적인 회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담에서 선언적인 문건에 담을 자주통일사상과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철의 론리로 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할데 대하여서와 북과 남의 두 제도,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통일을 지향하되 당면하여 이번 선언에서는 낮은 형태의 련방제문제를 담을데 대하여, 당국대화를 개최하고 련방기구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치문제, 경제문제, 인도주의문제도 풀어나갈데 대한 내용을 문건에 담을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명백히 하시였으며 상대측에서 잘못 생각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알기 쉽게 해설도 해주시였다.

회담에서 특별히 강조된것은 민족자주문제였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

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철저한 자주의 원칙에서 이룩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소박하고 평범한 하나의 단어속에 담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리정연하고도 애국애족적인 주장앞에서 남조선당국자는 시종 깊은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탁월한 명안이라고 감탄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바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에 방점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기본종자,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명기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 진행된 단독회담이 끝난 후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그리고 연회도중에도 남조선당국자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론의를 계속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 남조선당국자의 명의로 차린 답례연회에 참가하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공동선언초안을 받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대목에서는 바로잡을 방향을 지적해주시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친히 가필까지 해주시였다.

공동선언문을 완성해주신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날자는 6월 15일로 하여야 하겠다고, 문건이 잘되였다고 하시며 남조선당국자에게 보이도록 하시였다.

공동선언문을 받아본 남조선당국자는 희색이 만면하여 《국방위원장님, 공동선언문초안에 동의합니다.》라고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공동선언문에 대한 북남 쌍방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일화

《배우노릇 한번 더 합시다》

주체89(2000)년 6월 14일 목란관에서 진행된 연회장에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연락에 나가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시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였음을 만장에 알리시였다.

순간 연회장이 떠나갈듯 축하의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하지만 정작 이 력사적인 순간을 촬영하지 못한 남측기자들은 울상이 되여버렸다.

그들의 정상이 보기 딱하기도 했거니와 이 력사적인 순간을 력사에 남겨야 하겠다고 생각한 남측의 한 수행원이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두분께서 손을 든 장면을 기자들이 찍지 못해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고 남조선당국자에게 그러면 우리 배우노릇을 한번 더 하자고 하시며 연락으로 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연락에 나서시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였음을 알린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남조선당국자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시였다.

격정의 눈물이 없이는 볼수 없는 극적인 장면이였다. 장내에서는 폭풍같은 환호와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공동선언문 초안을 검토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남조선의 한 특별수행원은 《아마 만찬장에서 량정상이 합의문초안을 검토하고 또 수정지시를 하며 다시 합의에 이르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우리라.》고 탄성을 올리였다.

연회가 끝난 후 공동선언의 탄생을 정식 선포하는 서명식이 있었다.

활달하신 필체로 순식간에 서명을 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고 하시였다.

민족분렬 55년에서 2박3일간의 55시간은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55시간동안에 민족분렬의 장장 55년동안에도 이룰수 없었던 지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바로 2000년 6월 15일 날자로 발표된 북남공동선언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서 새로운 력사적기원을 만들어낸 민족자주선언, 민족단합선언,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자주로선을 구현한 자주통일대강이였다.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관통되여있다.

여기에는 오직 자주만이 민족의 생명이고 살길이라는 철리가 담겨져있으며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지와 념원이 담겨있었다. 자기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있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리념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공화국은 시종일관 자주를 주장하여왔다.

그것은 민족적자주권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조국통일이 우리 민족의 생명문제, 자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 자기 집안일을 집안끼리 해결해야지 남이 끼여들면 쉽게 풀릴 문제도 복잡해지고 어렵게 될수 있다.

더우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것을 배격

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힘이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족성원들이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을 유지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단결이자 민족의 존재이며 단결의 공고성이자 민족의 생명력이다.

특히 외세의 강요로 인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조국통일 그자체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기 위한 전 민족적인 위업이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기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전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대단결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며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적인 사상감정과 심리가 반영되여있다.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굳게 손잡고 나가려는 동포애와 모든것을 조국통

일에 복종시키고 통일의 길에 나서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다음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의 리념이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남조선에 미국의 수많은 핵전쟁장비들이 배비되여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삼천리강토는 황폐화되고 우리 겨레는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당하게 된다.

우리 민족끼리에 반영된 평화통일리념에는 우리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 강토에 드리운 전쟁의 검은구름을 가시고 통일되고 번영하는 평화로운 조국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미국의 핵전쟁정책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참으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핵이며 6.15시대의 자주통일의 기치, 대명제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종자로, 근본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삼천리강산과 세계는 환희로 들끓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들은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정계, 사회계, 학계, 종교계들도 앞을 다투어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점 모색, 리산가족상봉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당국간 대화 계속 등 5개 항은 <우리도 할수 있다.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것도 비공개장소에서의 은밀한 합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전세계,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룩한 합의이기때문에 그 약속이 더욱 값지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낸것은 수뇌회담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동아일보》 2000년 6월 15일부),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은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에로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경향신문》 2000년 6월 16일부), 《이번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충격으로 다가온것은 바로 1항의 자주라는 표현과 2항의 통일방안일것이다. 누구도 남북정상이 첫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통일방안을 합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시사져널》 2000년 6월 29일),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자리를 함께 한 날은 2박3일에 불과했다. 55년만의

만남치고는 너무 아쉬울만큼 짧은 시간이였다. 그러나 그사이에 <평양대특급>이라 할만한 세기적작품을 성공리에 완성시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등으로 북남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전 세계도 벅적 끓어번졌다.

북남공동선언이 나온 후 180여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 단체책임자들이 공동선언의 채택을 《세계를 진감시킨 특대사변》, 《**김정일**각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낳은 빛나는 결실》, 《조선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고 조선민족앞에 화해와 단합의 문을 열어놓은 결정적계기》라고 하면서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보여준 따뜻한 정성과 성심, 환대와 수고, 준비와 노력은 국제사회의 국가수반외교와는 비교할수 없는 진한 피줄의 흐름이요, 최고의 영접이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지금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면서 환한 얼굴로 례절을 다해 우리 민족의 특별한 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시사저널》 2000년 6월 29일)

◆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엮어낸 <세기적상봉극>은 질곡과 비탄의 땅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일대 사변이였다.

그리고 7천만겨레에게는 상상을 뛰여넘어 질풍노도처럼 몰아닥치는 평양발뉴스의 홍수속에서 모두의 가슴깊이 응어리졌던 한의 올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사변이였다.》(《동아일보》 2000년 6월 16일부)

각국의 통신, 방송들도 선언의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평양상봉과 공동선언을 《2000년의 가장 멋진 사변》이라고 평하였다.

세계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를 지구에 던진 《평양의 통일핵폭탄》으로 묘사한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였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위인상에 의하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전 민족적투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 《남북<정상회담>취재를 위해 마련된 서울 롯데호텔 기자쎈터도 내내 긴장과 흥분의 련속이였다.

남북의 수뇌가 처음 손을 맞잡는 순간 내외신기자들도 <객관적기록자>로서의 랭정함을 잃었다. 박수와 환호 심지어 안경너머로 눈물을 훔쳐내는것은 TV를 보며 울고웃던 일반 국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AFP 등 세계 주요통신기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김정일**위원장이 직접 영접 나왔다.>는 한줄을 <긴급기사>로 타전했으며 일부 기자는 쓰는것도 잊은채 아연한 표정으로 대형전광판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영국 BBC방송의 기자는 <놀랍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국일보》 2000년 6월 14일부)

남녘땅에 휘몰아친 《김정일열풍》

오늘도 사람들은 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일으킨 위인칭송의 열풍이 세기의 대지진마냥 온 세계를 뒤흔들고 인류를 격동시키던 나날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에서 남조선당국자와 진행하신 상봉과 작별은 우리 겨레의 눈앞에 펼쳐진 감동과 흥분의 련속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 15일 남조선당국자일행의 평양출발을 앞두고 일정에도 없었던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찬석상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정치인들이 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민족적책임을 다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평양을 떠나는 남조선당국자일행을 수많은 시민들이 연도에서 열렬히 환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비행장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행장에 도착하시여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조선

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고 그를 열렬히 환송하는 군중들앞으로 안내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는 감개무량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거듭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헤여지는 남조선당국자내외의 얼굴에는 석별의 정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행기가 리륙할 때까지 오래동안 남조선당국자내외를 따뜻이 손저어 바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남조선당국자를 친절히 배웅해주신것은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의의를 빛나게 장식한것으로서 온 세상을 또다시 격동시킨 일대 사변이였다.

일화

백마디 말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행장에서 남조선당국자와 뜨겁게 상봉하신 다음날인 주체89(2000)년 6월 14일이였다.

남조선의 신문들은 일제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와 악수하시는 장면을 1면에 크게 모시였다.

그중에서도 《경향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와 악수하시는 장면을 1면 전면에 모시고 거기에 아무런 해설글이나 사진설명을 달지 않았다.

그 한장의 사진이 수백수천마디의 말을 전하고있는데 구태여 사진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었으랴.

절세의 위인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위인적풍모와 그이께서 베푸신 따뜻한 동포애는 달아오른 6월을 더욱 가열시키는 위인칭송열풍, 《**김정일**열풍》으로 되여 온 남조선땅을 휩쓸며 민심을 뜨겁게 달구었다.

서울로 돌아간 남측수행원들의 반향은 대단히 컸다.

그들은 서울에 돌아가자마자 평양방문에서 받아안은 충격과 흥분을 언론과 모임들을 통하여 저저마다 소개하였다.

남조선문화관광부(당시) 장관은 서울에 도착한 날 밤늦게까지 TV에 출연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민족적인 례의가 밝은분》, 《통이 크고 호탕하며 모든것에 환하시고 매우 넓으신분》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장군님을 칭송하였던지 남조선언론들은 그를 가리켜 《평양상봉후 <정상회담>의 결과와 력사적의미를 선전하는데 주력하는 통일의 전도사》라고 불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칭수식사를 그대로 붙여 호칭하며 6.15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모든것을 다할 결의를 표명하는 통일부 장관에 대하여 《한나라당》(당시)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위원장의 홍보부 장관이 된것같다.》고까지 하였다.

당국자들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특별수행원들도 그이의 위인상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한 대학교수는 위대한 장군님은 《순간적인 재치가 번뜩이고 매우 쾌활하며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하였고 한 수행원은 《격식을 따지지 않는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 《일단 결정을 내리면 정말 화끈하게 일을 처리하는 형의 지도자》이시라고 찬양하였다.

남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위대한 장군님은 《판단력이 빠르고 유모아감각과 순발력, 회의장을 주도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였다고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에 왔던 남측일행은 한결같이 《**김정일**위원장은 유일한 중심이였고 **김정일**위원장이 결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것이 곧 의전이고 격식이며 관례가 되는듯했다. **김정일**위원장은 조금의 거침도, 약간의 막힘도 없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솔직하고 유모아 넘치는 대화술이 인상깊었다.》, 《언어를 골라서 쓸줄 알았고 풍부한 표현력도 갖고있었다.》며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였음을 스스럼없이 피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위대하시기에 남측성원들이 그이께 이처럼 매혹되였던것이고 서울에 돌아가 자기들의 심정의 일단을 그대로 토로하였던것이다.

평양에 왔던 남조선기자들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련속 울려나왔다.

신문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징을 《첫째로 솔직하고 소탈한분》, 《둘째로 대단한 카리스마(예언과 기적을 창조하는 초인간적능력,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 《셋째로 아는것이 많은분》, 《넷째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지도자답게 우리의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분》, 《다섯째로 거침없으면서도 례의가 깍듯한분》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의 메아리는 남조선의 언론들을 통해 더더욱 퍼져나갔다.

남조선신문들은 앞을 다투어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천연색사진으로 지면을 꽉 채워 모시였다.

이것은 남조선신문계의 전례없는 보도자세였다.

TV와 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서 전하였는데 남조선인민들은 모두가 《정치가의 목소리》, 《장군형의 목소리》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력사에는 위인들이 많았지만 위인의 음성을 두고 이처럼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파문을 일으킨 례는 일찌기 없었다.

지어 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옷차림에 대하여서까지 세밀한 관심을 돌리면서 그이께서 자신의 예술적기지로부터 자기식의 독특한 류행을 창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언론계의 전례없는 보도자세를 두고 잡지 《시사저널》은 《대북문제에서 보수적인 론조를 유지하던 국내언론들도 련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보안법>위반을 서슴지 않고있다.》고 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은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서광처럼 비껴들었다.

남조선의 그 어디에서도 그이의 위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성큼 다가선것만 같은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설레이였다.

온 남조선땅을 불도가니마냥 달아오르게 한 《**김정일**열풍》은 남조선언론이 평가한것처럼 평양상봉이후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왔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적풍모에 매혹된 목소리들이 련일 울려나왔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이의 환하신 미소가 비돌의 글자처럼 깊이 새겨졌다.

관동대학교의 어느 한 교수는 《**김정일**충격, 그것은 쾌활함과 친근감의 이메지(영상)가 주는 긍정적충격》이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반한 흠모와 감사의 글들이 수많이 실리였다. 그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 따라하기》가 사회적으로 급속히 전파되였다.

정치인들속에서는 《**김정일**식즉단즉결》을 말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통이 큰 정치》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울려나왔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식 대화법과 함께 그이께서 쓰시였던 색안경과 입으시였던 옷차림도 사회적으로 널리 류행되였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속에서는 《**김정일**식수표하기》가 벌어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속에서는 《**김정일**식주체필법》으로 글씨를 배우려는 풍조가 휩쓸었다.

남조선땅에 휘몰아친 《**김정일**열풍》은 거대한 격변이였다.

이 열풍은 반세기이상 체질적으로 굳어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통치기반과 민족분렬체제를 밑뿌리채 흔들어놓았다.

《**김정일**열풍》은 지난 55년간 남조선사회를 떠받쳐온 기존의 인식체계도 일거에 붕괴시켰다.

6월 15일부 신문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7%가 《북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답변하였다.

2박3일이라는 력사의 한순간에 반세기가 넘도록 남조선사람들속에 깊이 뿌리박힌 적대의식을 180° 급선회시킨것과 같은 기적을 창조한 정치가는 인류정치사에 일찌기 없었다.

평양상봉직후 남조선여론조사기관의 하나인 《현대리서치》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84%가 위대한 장군님을 《현실을 잘 리해하는 인물》,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인물》, 《파격적이고 통이 큰 인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정치계에서 일어난 전례없는 의식변화

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잡지 《월간중앙》(2000년 8월호)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함축하여 전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 경천동지할 격변기를 맞고있다. 지난 55년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던 사상적기본틀을 비롯한 총체적남북인식구조가 한 순간에 뒤바뀌는 그야말로 <초현실적상황>에 직면한것이다.

TV화면에 나타난 **김정일**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낯설지만 신기하고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운것이였다. 이런 모습이 국민

◆ 《평양상봉기간 TV로 생생하게 공개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육성과 동영상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최대화제는 단연 <인간 **김정일**위원장>이였다.

이 대중적충격은 <**김정일**충격>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말》 2000년 7월호)

◆ 《<**김정일**열풍>이 번지고있다. 대학가, 서점, 대중문화계 등에 부는 <열풍>, <**김정일**쇼크>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에서부터 먼저 촉발됐다.

김정일위원장은 우리 사회전반에 일종의 <**김정일**열기>를 일으켰다.》(《뉴스메이커》 2000년 6월 29일)

◆ 《<**김정일**열풍>이 <한>반도 남쪽을 강타하고있다. 남북수뇌회담 2박3일동안 TV를 통해 비쳐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의 여파때문이다. 군사분계선 남쪽의 사무실과 술집, 지하철도안에서는 <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줄을 잇는다.》(《한겨레》 2000년 6월 19일부)

들에게 안겨준 충격은 가히 <핵폭탄>에 비유할 정도였다. 어느날 갑작스레 남쪽나라에 직격투하된 이 폭탄은 2박3일 내내 지속된 <섬광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 전 부분에 걸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국제정세도 대번에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참으로 평양상봉의 순간순간은 통일의 거목에 새겨온 수십년의 년륜을 합친것보다 더 큰 전진과 변혁을 아로새긴 력사적화폭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 세기 자주통일시대의 장엄한 통일서사시였다.

2) 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위하여

사라진 비방중상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6.15자주통일시대가 열리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이 땅에 밝아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리행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통일을 위해 큰걸음을 내짚을 수 있는 좋은 합의들이 이룩되군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이 돌아앉아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여 그 합의가 실행에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군 하였다.

력사적인 7.4북남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에도 북과 남은 서로 비방중상을 중단할데 대한 문제를 합의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이 그 합의를 깨여버리고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려놓았었다.

이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여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이번만은 그렇게 되여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몸소 그 실현을 앞장에서 이끄시여 북남 쌍방사이의 비방중상중지문제를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주체89(2000)년 6월 15일이였다.

이날은 남조선당국자일행이 력사적인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게 된 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일행을 위하여 일정에 없었던 오찬을 마련하시고 몸소 참석하시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6.25전쟁과 관련한 행사문제를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대한 남측의 립장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보시겠다는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그이의 말씀에 금의환향하게 되였다고 즐거움에 부풀어있던 남측일행의 얼굴들은 굳어졌다.

사실 해마다 6.25가 되면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사들이 년례적으로 벌어져왔었다.

이것들은 당국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남조선의 력대 당국자들은 그것을 남조선인민들속에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

취시키고 《흡수통일》의 망상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악용해왔다.

민주를 표방하던 당시의 남조선당국도 한해전부터 미국과 함께 6.25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되는 2000년에 관련행사를 크게 벌리기로 하고 숱한 자금을 들여 그 준비를 벌려왔었다.

그들은 남조선과 미국에서 대규모적인 공동행사를 벌려놓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를 해왔으며 행사의 성격도 지난 시기와 같이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데 두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남조선당국자는 놀라며 그렇게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였다.

남측성원들도 그렇게는 안될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기들이 그런 문제들에서 서로 협력해나가겠다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6.25전쟁과 관련한 행사문제를 잘 조종해나갈것을 거듭 약속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으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남조선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자는 서울에 돌아가자마자 전연에서 공화국에 대

한 비방중상방송을 중지하도록 군부에 지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7.4북남공동성명발표이후 처음으로 남조선국방부는 평양상봉이 끝난 다음날부터 수십년동안 군사분계선에서 진행해오던 공화국에 대한 비난방송들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며칠후에는 국방부지침을 발표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호칭은 공식직함을 붙여 《**김정일**국방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공화국에 대한 표현도 고치도록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6월 19일부터 23일사이에만도 여러 차례나 남조선의 주요언론사 사장들과 주필, 편집국장 등 언론계의 중진인물들을 모두 청와대로 불러들여 조찬, 오찬, 만찬을 차려주면서 공화국에 대한 비난방송을 자제해줄것을 요청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측일행에게 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하자면 북남사이의 비난전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면서 남측도 북의 모범을 따라 공화국에 대한 비난선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해나섰으며 실지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KBS》, 《MBC》, 《SBS》 등 방송들뿐 아니라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은 공화국에 대한 비난선전을 중지하고 《강성대국이란 무엇인가》, 《선군정치방식이란 무엇인가》 등의 표제를 달고 공화국을 객관적으로 소개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당국은 6.25전쟁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도 그 규모를 대폭 줄이였으며 내용도 《평화공존》으로 바꾸었다.

남조선의 극우보수단체들도 내외정세가 급격히 변화되고 종전처럼 반공화국일변도로 나가다가는 고립배격당할수 있다는 위구심으로부터 당국과는 별도로 준비해온 반공화국행사의 성격을 부랴부랴 수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이 중지되고 인민들의 반북의식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자 우익보수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잡지 《월간조선》(2000년 7월호)은 우익세력의 비명을 두고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북측은 **김정일**위원장 중심체제의 강철같은 결속을 과시한 반면 남측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심각한 갈등구조를 점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북측은 《반세기에 걸쳐 영욕이 점철된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남측의 반공체제를 일격에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썼다.

전연에서부터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이 사라지고 대규모의 반공화국행사가 부랴부랴 취소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대북의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위해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려세우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기로 짓뭉개버리고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삼천리강산이 통일열기로 한껏 달아오르고있을 때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이 지내 빠르다느니,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을 사촉하여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흐려놓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대규모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다. 얼마후에는 전투함선들을 서해의 공화국령해 깊숙이 침투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더우기 2000년 12월 남조선의 국방부는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2000국방백서》를 공식 발표하였다.

남조선군부의 호전세력들은 이 《국방백서》에서 있지도 않는 북의 《전력증강》과 《지속적인 침투활동추진》, 《군사적위협의 존재》 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북의 《현실적군

사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주적개념》을 유지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남조선의 통일부도 그 무슨 《여론조사》라는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의 존엄높은 정치체제를 걸고드는 엄중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과 남조선반통일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으면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기대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북남관계가 반목과 불신,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수 있었다.

북남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도발행위들에 온 겨레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12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동족사이에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는 《주적》론을 또다시 들고나오고 우리의 정치체제까지 걸고드는것은 명백히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북남관계를 되돌려세우려는 반통일행위라고 단호히 규탄하였다.

공화국은 이틀후 평양에서 진행된 제4차 북남상급회담에서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들고나온 《주적》론을 되게 문제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립장과 자세로 나올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반세기이

상 대결과 긴장, 불신만이 존재하던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가 도래하고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언론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언론인들은 시대를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틀어쥔 붓대와 마이크를 통하여 정의와 진리가 전파되고 력사의 전진이 추동되게 된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가리켜 사회여론의 대변자, 정의와 량심의 전파자라고도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언론들은 편견과 외곡으로 공화국에 대하여 나쁜 소리들을 많이 하면서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해왔다.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당국자들의 민족대결정책에 추종하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가는데 앞장선것도 다름아닌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였다.

그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나온 후에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북남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몰두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과 북남관계개선에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언론인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남조선언론인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미 력사적인 평양상봉기간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을 초청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남조선의 주요신문, 방송회사 사장, 총국장들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큰 규모의 언론사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평양방문기간에 동포애의 따뜻한 정과 공화국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대로 느낄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방문의 날을 이어갔다.

그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국제친선전람관과 로동신문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공화국의 언론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을 다짐하고 북남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도 발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표단의 일정에서 백두산지구참관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특별비행기까지 내주도록 하시였다. 대표단의 한 성원이 방문기간에 생일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지구를 참관하면서 대표단성원들이 받은 충격은 자못 컸다.

그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백두산정에 올라 장엄한 해돋이를 부감하면서 우리 민족은 백두산하늘아래서 한피줄을 잇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임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8월 12일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평양을 방문한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북과 남의 언론기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담아 훌륭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데 대하여 축하하시였다.

그러시고 이제는 북남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도 나온것만큼 서로 힘을 합쳐 공동선언리행에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이제는 누구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멈춰세우거나 훼방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언론사대표들은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지난날 자기들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돌이켜져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든지 6.15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나선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그리고 과거는 물론 어제날의 실언도 불문에 붙이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언론사대표들을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후날 세계의 언론이 《미국에 의해 수십년간 길들여진 반공나팔수들을 너무도 짧은 순간에 련공나팔수들로 변신시킨 경이스러운 오찬》이라고 평한 이날의 오찬은 시종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였다.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자기들을 평양에 초청하시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의례절차 같은것은 뒤로 하시고 너무도 허물없이 자기들을 대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소탈한 풍모에 어려움이나 자제력도 잊은 대표단성원들은 축배잔을 내려놓기 바쁘게 기자로서의 본태를 드러내였다.

먼저 어느 한 신문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군님께 서울에 언제쯤 오시겠는가고 첫 물음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질문이 언론인고유의 직업적타성

에서 나온것일것이라고 아량있게 대하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고 대답을 주시였다.

그러자 그는 국방위원장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자기네 언론사 전체 성원들이 떨쳐나서 국방위원장님을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며 한손을 들어 그에게 답례를 보내시는데 누군가 또 질문을 드리였다.

일화

《속기수》가 된 사장들

2000년 8월 13일 남조선의 주요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을 위한 오찬회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을 일제히 게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200자 원고지 80매분량에 달하는 방대한것이였다.

이 말씀이 신문에 공개되기까지는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원래 국가지도자와의 연회나 오찬시에는 담화내용을 기록하지 않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언론사 사장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고 그이의 주옥같은 말씀을 받는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례의에는 어긋나지만 장군님의 말씀을 토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오찬이 진행되는 기간 서로 교대적으로 그이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후에는 다시 모여앉아 말씀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하기까지 하였다.

남북조선의 수뇌분들을 시드니올림픽에 초청할 경우 시드니에 가시겠는가 하는 질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시드니에 가서 배우 노릇을 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이 사는 서울에 가서 동포들을 먼저 만나보겠다고 하시였다.

즉석에서 주시는 대답이였지만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애국애족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여서 언론사대표들은 약속이나 한듯 자리에서 일어나 요란한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오찬회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였다.

언론사대표들은 오찬회장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기자회견장이라고 생각한듯 무례하다할 정도로 질문을 드리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즉석에서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놀라웠다. 어떤 복잡한 문제에도 막힘이 없으시였고 마디마디에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남조선에서 제노라 하던 언론계의 《대부》들이였지만 너무도 활달하고 위풍당당하시면서도 너무도 평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막역한 사이처럼 허물없이 롱도 하시고 격식없이 대표단성원들과 잔을 찧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며 오랜 친구처럼 그

들의 팔을 끼고 다정히 걷기도 하시면서 대표단성원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에 때로는 단마디로 명백하게, 때로는 해학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누구에게나 가슴후련하게 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장군님은 말그대로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멋진 지도자》이시였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북남 및 국제관계는 물론 생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까지도 경쟁적으로 드리였다.

앞으로의 대외관계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으면 한다는 질문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주변에 큰 나라들을 두고있고 북과 남의 인구를 합쳐도 1억이 안되는것만큼 어디까지나 제정신을 가지고 존엄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큰 나라라고 하여 그에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굽신거리지 말아야 한다, 자주성은 곧 민족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리익을 지키는데서는 뭐니뭐니해도 군대가 강해야 한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군사력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강한 군사력이 없이 그저 큰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 옛날의 대원군이나 명성황후신세를 면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모든 사고의 첫자리에 언제나 민족의 리익을 놓으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여도 애국의 넋과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였다.

외신들까지도 《오찬에 참가한 언론사 사장들모두가 속기수가 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빠짐없이 기록보도한것만 보아도 오찬회의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오찬을 통해 지난날 불신과 대립만이 지배하던 북남언론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언론의 탄생을 선포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신것은 그들이 6.15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언론인의 본분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이후 남조선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공화국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소개선전하

◆ 《북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크게 변했다. 매우 호혜적이며 정중하다. TV에서는 북의 여러 모습을 특집으로 꾸며 호의적으로 방송하고있으며 북 영화도 잇달아 방영하고있다. 수뇌회담관련 좌담회에서는 북의 실상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법이 없다. 이런 변화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될것이다.》(《한겨레》 2000년 6월 14일부)

였다.

남조선언론계는 20세기의 특기할 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사진들을 전례없이 많이 모시였다.

2000년에 남조선의 주요신문 11종과 잡지 14종만 보아도 절세의 위인들의 영상사진을 총 1 030상을 모시였다. 신문 《경향신문》(2000년 12월 21일부)과 잡지 《시사져널》은 위대한 장군님을 《2000년 올해의 인물》로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주요신문들과 잡지들이 북남합의서 발표이전인 3월 한달동안에 공화국과 관련한 기사를 평균 7.5건(사설은 평균 3.5건)을 실었다면 평양방문이후인 9월과 10월에는 사설만 해도 한달에 평균 10건으로서 3일에 한번정도로 실었으며 기타 시론, 론평 등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게재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의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우익보수세력들속에서는 《친북언론으로 전향했다.》, 《남의 <정부>기관지인지 북의 정부기관지인지 분간할수 없다.》는 아우성까지 터져나왔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뜨거운 사랑, 크나큰 도량으로 만인을 매혹시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가 안아온 또 하나의 기적이였다.

돌아온 통일애국투사들

6.15북남공동선언의 혜택이 겨레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였다.

통일애국투사들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왔던것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혈육들의 곁으로,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정녕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였다.

2000년 9월 남조선에서 수십년세월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지켜낸 63명의 통일애국투사들이 온 겨레의 뜨거운 관심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판문점의 중앙분리선을 넘어 그토록 그리던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꽃나이청춘시절에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섰다가 인생의 황금시절을 철창속에 묻으면서도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그들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떠받들려 당당히 돌아오는것이였다.

세기의 분기점에서 일어난 이 사변은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의 세계, 6.15북남공동선언이 낳은 력사적 화폭이였다.

가장 숭고한 동지애를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투사들의 생존여부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세기 90년대초부터 그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였다.

1993년 3월 남조선에서 수십여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가 판문점을 넘어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들을 데려오기 위한 투쟁에서는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을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귀환을 위해 간곡한 가르치심도 수시로 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6(1997)년 5월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 김인서가 34년간의 옥중투쟁과정에 얻은 병세의 악화로 고생하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슴아파하시면서 그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고급약들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그 약들이 어떻게 하나 본인에게 가닿도록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귀환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의 사회단체들은 통일애국투사들의 조속한 귀환을 요

구하여 성명과 담화를 련속 발표하였다. 또한 통일애국투사들의 조속한 귀환을 실현하기 위한 련대성을 호소하여 국제인권단체들과 기구들, 세계 각국의 인권기구들과 정당, 단체들에 편지들을 보내였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편지보내기, 서명운동, 기자회견, 항의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귀환운동이 벌어졌다.

세계는 21세기가 다가오고있는 때 《자유민주주의사회》라고 광고하는 남조선땅에 중세기적인 사상전향을 강요당하여온 통일애국투사들이 있다는 사실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계와 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해나섰다.

그리하여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문제는 세계적으로 20세기 최대의 인권문제, 인도주의문제로 부각되게 되였다.

통일애국투사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1월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들모두를 빨리 데려올데 대하여 강조하신데 이어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6월의 북남수뇌상봉시 북과 남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고 마침내 합의를 보시

였다.

그러시고 이 문제를 6.15북남공동선언의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명문화하여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공동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8.15귀환약속을 위반하는데로 나갔다.

원래 력사적인 평양상봉때에는 8.15에 즈음하여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과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으로 합의되여있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8.15에 즈음하여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8월에는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만 하고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은 9월에 하자고 제기해왔다.

북과 남이 공동선언에 수표한것이 불과 한달도 채 못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것은 결국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거부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면 공동선언을 파기한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언명하시였다.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은 9월초에 무조건 귀환시키겠다는것을 담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먼저 생각하시며 9월초의 귀환문제를 받아들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 30일 재미녀류기자 문명자녀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러시고 우리는 남측에 할수 있는껏 다 양보해보자는것이라고 하시며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을 기어이 성사시키실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월 어느날에도 일군들에게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 60여명을 9월에 데려오게 된다는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들은 수십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것으로 하여 떳떳하게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고, 비전향장기수들을 다 데려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끝내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가 《혁명가들의 암흑으로부터 광명에로의 대이동》, 《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며 경탄을 금치 못해한 63명 통일애국투사들의 집단귀환은 절세의 위인의 이렇듯 숭고한 동지애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이 땅에 펼쳐질수 있었다.

19세기초엽 로씨야를 침공하였다가 패전하여 포로된 나뽈레옹군대의 많은 병사들은 오래동안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

고 감옥생활을 하였다.

로씨야는 포로들을 데려가라고 거듭 요구하였지만 프랑스의 부르봉왕조가 나뽈레옹때의 포로들은 모른다고 거절하였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근 30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통을 다 당하였지만 끝내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것은 력사의 갈피에 묻혀있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품어줄 조국이 없고 령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세계를 경탄시킨 통일애국투사들의 귀환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대정치사변이였다. 절세의 위인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의 세계가 펼친 20세기 사랑의 전설이였다.

온 겨레가 환호성을 올리며 통일애국투사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오로지 자기의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검은머리 백발이 되도록 신념을 지킨 그들을 맞이한 판문점의 환영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일군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 통일애국투사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통일애국투사들은 거의 한생을 철창속에 갇혀있으면서도 눈물을 보일줄 몰랐던 강철의 인간들이였다.

하지만 꿈에서도 그리던 공화국의 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감격, 고마움에 젖은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였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수백리 연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투사들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들을 위하여 성대한 축하연과 평양시환영군중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그들모두에게 조국통일상과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도록 하시였다. 수십년세월 옥중에서 다 해진 홑겹의 수의만을 걸치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그들에게 계절에 따르는 고급옷류들과 생활필수품들도 보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병마에 시달려온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그들을 치료할 전문병원도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고급약재와 귀중한 보약들도 거듭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투사들이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약동하는 현실을 마음껏 보고 즐기도록 해주시였으며 한날한시에 생활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고급살림집들도 안겨주시였고 생일상도 차려주시였다.

통일애국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의 세계는 끝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모진 고문으로 하여 폐인이 되였던 육체를 공화국의 품속에서 청춘으로 회복한 《총각할아버지》들에게 결혼식상도 차려주시였다.

남조선에서 《먹방인생》, 《인간폐기품》으로 천대받던 자기들을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그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갓 태여난 아기이름을 지어주실것을 소청드리는 한 통일애국투사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감옥살이로 얻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통일애국투사들의 운명을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령전에 화환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은정을 돌려주시여 그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은 력사의 갈피속에 묻힐번하였던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며 그들의 후대들에게도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남녘땅에 퍼져간 송이버섯향기

6.15북남공동선언은 철두철미 민족자주선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에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이 바로 선언의 이 정신이 구현되는 사업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후 추석명절을 맞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에게 칠보산의 첫물송이버섯을 보내주시여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위한 길에 민족의 향취가 더욱 짙게 풍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추석명절을 앞둔 2000년 9월 어느날이였다.

서울의 한 비행장에 분렬의 장벽을 넘어온 공화국의 비행기가 서서히 멈춰섰다.

비행기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임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대표하는 일군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이 내리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에 참가하였던 남측수행원들과 남조선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행 등에게 칠보산의 명물인 송이버섯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일군들이였다.

동해바다가에 우뚝 솟아 함북금강으로 불리우는 칠보산, 일곱가지 보물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이 명산의 명물들가운데는 우리 나라 버섯들가운데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송이버섯도 있다.

소나무의 상긋한 냄새와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쫄깃한감을 주는 부드러운 맛으로 하여 예로부터 소문난 칠보산송이버섯이 어떤 사연을 안고 남조선땅에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게 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8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이 칠보산에서 첫물송이버섯을 많이 땄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평양상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남측일행을 위해 국방위원회 명의로 차린 오찬회석상에서 남조선당국자의 부인은 연회탁에 오른 송이버섯료리를 보고 귀한것이라고 부러워하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석을 맞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향취를 느끼기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을 담아 칠보산의 첫물송이버섯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남측에 송이버섯을 보내줄 때 력사적인 평양상봉에 참가하였던 남측성원들은 물론 6.15공동선언발표직후 평양에 왔던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일행과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에게도 보내주며 한사람당 몫도 1～2kg정도가 아니라 10kg씩 하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였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200여명의 남측성원들모두에게 각각 10kg씩 주자고 해도 2t이상의 송이버섯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량도 엄청났거니와 국제시장가격으로 볼 때 그 값도 약차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송이버섯 포장문제로부터 수송경로 및 방법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이런 뜻깊은 사연이 담긴 사랑의 송이버섯이 2000년 9월 분렬의 장벽을 넘어 서울에 나가게 되였던것이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송이버섯전달식에서 국방위원회를 대표하는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의

평양상봉수행원들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일행 등 260여명에게 보내주신 송이버섯을 1인당 10㎏씩 전달하였으며 그밖에 평양에 와보지 못한 60여명의 각계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송이버섯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남측인사들에게 전달된 칠보산송이버섯!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고있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리행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남녘동포들에게 민족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의 정화였다.

추석을 맞으며 민족의 향취그윽한 칠보산의 첫물송이버섯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송이송이마다에 슴배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민족애가 뜨겁게 닿아와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날 공화국을 적대시하여온 야당총재도 위대한 장군님의 정과 덕을 무심히 받아들일수만 없어 그이께 감사의 표시로 전례없이 선물을 올리였다.

송이버섯을 보내주시여도 한두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지함씩 통채로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도량이 실린 송이버섯향기는 온 남조선땅으로 진하게 퍼져나갔다.

2000년 9월말 금강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그이께 추석때 저희들에게 너무 좋은 송이버섯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정몽헌회장과 일행은 선도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향기가 그대로 있었다고, 송이버섯상자를 보니 역시 칠보산의 송이버섯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였다.

현대의 한 관계자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것이라고 하면서 송이버섯을 은박지에 싸서 현대아산 직원 100명에게 다 나누어주었다고 말씀드리였다.

남조선의 각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를 전하는 칠보산송이버섯전설이 생겨나 널리 전해지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맛있다, 칠보산송이버섯》 등의 제목으로 송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칠보산송이버섯이야말로 특유의 향기와 맛, 섬세한 섬유질을 가진 최고식품으로서 내외에 《가을의 미각》이라고 소개될만큼 명품이라는것,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으로 불리우는 명산이라는것, 북에서는 이미 1976년에 이 산을 자연보호구로 정하였다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에는 5대명산을 꼽았지만 로동당시대에는 6대명산을 꼽고 칠보산을 단연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같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는것 등 저저마다 칠보산송이버섯과 칠보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6.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민족애의 최고화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동포애가 있어 대결과 긴장, 불신만이 존재하던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3)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통일,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새 세기의 첫해 2001년을 맞이하는 겨레의 가슴에는 남다른 희망과 격정이 파도쳤다.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의 숙원을 이룩할 열망이 삼천리강토에 굽이쳤다.

희망도 락관도 믿는 힘이 있어 생기는 법이다.

50여년동안 지속되여온 대결과 분렬의 북남관계를 단 2박 3일동안에 화해와 통일에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상에서 온 겨레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주체90(2001)년 1월 3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

국통일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위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보아주신 문건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는 교시를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났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불과 몇달사이에 북남관계에서는 전례없는 전진과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상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회담들과 협력,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여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들먹이는 일군

들을 바라보시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라고,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고,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다고,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반공을 하던 사람들도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겠다고 하면 대담하게 포섭하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은 다 포섭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으로 새해에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신 **김정일**장군님.

돌이켜보면 온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데는 우리 겨레가 단합되지 못한것과도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단합하여야 하며 또 능히 단합할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시고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의 대명제를 밝히시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지금껏 제시되여온 민족대단결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그 최고정화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의 담화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

과 6.15북남공동선언을 통하여 확인된 새로운 민족적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우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를 표명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 정초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의지를 천명하신데 이어 2001년을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일 구상을 펼치시였다.

2001년 1월 10일 평양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가 진행되였다.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와 많은 각계 대표들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첫해인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할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부터 조국해방이 이룩된 8월 15일까지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

써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하며 21세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맞는 해방의 날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회의 제안과 호소는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대회의 제안과 호소를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계기》,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충실한 리행의지를 밝힌 계기》로 적극 지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새 세기 벽두부터 겨레의 통일열의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통일행사들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고 민족적단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계기를 통하여 민족적단합과 민족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2001년 1월의 대회에 이어 5월에는 공화국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성대히 진행하며 북과 남, 해외에서 각각 의의있는 행사들을

널리 조직하고 8.15까지 민족통일촉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할 사업들과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를 내올것을 결정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공화국정당, 단체 합동회의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울려퍼지고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다양하게 벌어졌다.

남조선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와 통일운동단체들이 단일기구를 구성하였으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40여개 학생,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련대(통일련대)가 6월 3일 1만여명의 참가밑에 서울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범국민대회를 가지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일본과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들도 보고회와 집회, 영화감상회와 예술축전, 음악회들을 널리 조직하였다. 재미동포들은 미국 전 지역에서 모여온 각계 동포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톤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현 아메리카주동포통일축전을 뜻깊게 진행하였다.

다양한 통일행사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 6월 15일 금

강산에서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 및 각계 인사 수백여명의 참가밑에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새 세기 우리 민족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로, 리정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결의다졌다.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는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나, 이룩된 성과로 보나 통일운동사에 남을 거족적인 민족통일회합이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신문, 통신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가리켜 《50여년만에 열린 남북련석회의》, 《남북련석회의이후 가장 큰 규모의 회합》이였다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계기로 급격히 앙양된 겨레의 통일열의를 계속 북돋아주시면서 조국해방의 날인 8.15에 또다시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

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8.15통일행사를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 8.15민족통일대축전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며 온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계기로 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8월 14일 평양에서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에 떠받들려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통일거리 남쪽입구의 평양—개성사이의 도로를 중심축으로 하여 10여만㎡의 드넓은 부지에 궁륭식으로 특색있게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민족적색채가 넘치는 탑신과 부주제군상들이 부각되여있는 기단이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창조물이다.

도로의 좌우 량옆으로부터 금시라도 얼싸안고 통일만세를 부를듯 두팔을 힘껏 뻗쳐 조선지도가 새겨진 3대헌장마크를 높이 받들어올리는 조선옷차림의 두 녀인의 열정적이고 환희에 넘친 모습을 형상한 탑신의 높이는 30m로서 3대헌장이 조국통일의 불멸의 기치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기념탑의 너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것을 약속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상징하여 61.5㎜로 되여있으며 무게는 7천만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를 반영하여 7 000t으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교시가 기념탑의 비돌에 정중히 새겨져있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김 일 성》

탑신의 량쪽기단에는 조국통일3대원칙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편 그리고 통일조국만세편 등 4개의 편으로 이루어진 부주제군상들이 특색있게 형상되여 기념탑의 사상주제적내용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기념탑의 좌우 량쪽에는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단체들과 개별적인 대상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기구 및 개별적인사들이 지성껏 마련하여 보내온 기증돌들이 전시되여있는 4개의 방이 있다.

이 방으로 들어가자면 그 무게가 3t이나 되는 돌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는 조국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는 리치를 새겨주고있다.

돌문의 중심에 부각된 조국통일상메달은 통일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있다.

그 사상적내용이 심오하면서도 형식이 독특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구상, 령도의 손길에 의해 21세기의 첫 기념비로 이 땅우에 일떠서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이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의 불타는 지향이 그대로 어려있는 통일념원탑이다.

2001년 8월 15일 새로 일떠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북측대표 300여명, 남조선의 220여개 정당, 단체대표 300여명, 해외 각 지역 대표 60여명과 평양에 체류하고있던 해외동포 300여명을 포함하여 수만여명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16일에는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종교인들 그리고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성원들과 남조선경제인들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북남녀성통일연단,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련대무대가 마련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련이어 펼쳐져 통일열기를 더해주었다.

대회기간에 범민련 북, 남, 해외 각 지역 의장단 성원들의 참가하에 범민련의장단협의회가 진행되고 북의 민족화해협의회 성원들과 남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성원들의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한편 2001년 8.15를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평양에서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 공동사진전시회를 가지였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새로운 통일시대상, 민족대단합의 장을 펼쳐보인 전례없는 통일대축전이였다.

지난날의 통일대축전들에는 주로 북과 해외측대표들을 기본으로 하고 남측에서는 사선을 헤치고 달려온 한두명의 《한총련》대표나 통일운동권의 몇몇 대표들이 참가하는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220여개에 달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의 대표들이 합법적으로 폭넓게 참가한 그야말로 통일운동의 새 장을 열어놓은 민족통일대축전이였다.

이렇듯 2001년에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새 세기의 첫해에 통일위업수행에서 큰걸음을 내디딘것은 우리 겨

레에게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21세기를 민족사에 길이 빛날 통일번영의 세기로 빛내일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하였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

6.15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북남관계가 6.15의 궤도를 따라 급속히 개선되여나가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북남공동선언실현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해나섰다.

집권전부터 대조선강경정책을 부르짖던 미국의 부쉬는 집권 첫날부터 호전적인 폭언들을 거리낌없이 쉐쳤으며 공화국을 《불량배국가》, 《테로지원국》으로 몰아붙이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였다.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공화국의 《붕괴》론에 대해 로골적으로 떠들었으며 미국회에서는 《미조기본합의문폐기 등 더욱 강경한 대북로선을 취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은 공화국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부쉬행정부는 대북강경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남조선의 반

통일세력들을 민족대결에로 부추기고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때를 만난듯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안보》와 미국과의 《공조》를 내걸고 《주적》론을 떠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섰다.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앞에서 남조선당국은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할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남관계보다 대미관계에 더 신경을 쓰면서 6.15공동선언에 배치되는 길로 나갔다.

좋게 발전해나가던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대미추종책동으로 하여 다시 랭각되기 시작하였다. 3월중순에 하기로 되여있었던 제5차 북남상급회담은 제 날자에 진행할수 없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북남대화에 대한 옳은 립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01년 9월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북남당국사이의 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였다.

여기에는 당국간의 대화가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명실공히 통일지향적인 대화로, 민족공동의 리익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실있는 대화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리하여 2001년 9월중순 서울에서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남관계발전에 대한 기본립장과 현안문제들을 밝혔다.

우리측은 미국과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의 책동으로 북남당국대화가 중단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진데 대하여 상기시키고 교훈은 북남관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의 핵이고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의 최고리익이며 바로 여기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있고 공동선언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쇠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의 원칙적립장과 진지한 노력에 의해 쌍방은 북남공

동선언리행을 위한 지난 시기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견지에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사항들을 실천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10월초 금강산에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1차 북남당국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10월로 예견된 제6차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과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 공화국태권도시범단의 서울방문을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제5차 북남상급회담이후 북남관계에 계속 먹구름을 몰아왔다.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로사건을 구실로 북의 그 무슨 《도발가능성》을 떠들면서 남조선군에 비상경계조치까지 취하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매여달리였다.

결국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이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제5차 북남상급회담 합의사항리행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공화국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부합되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 립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주도

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반북대결책동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북남사이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과 함께 공동보도문초안까지 제시하고 그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만 조성하면서 이미 합의하여놓았던 내용들마저 뒤집어놓는 불순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근 한주일이라는 전례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은 결실없이 끝나고 북남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게 되였다.

제6차 북남상급회담은 누가 진실로 6.15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2002년초에 이르러 북남관계는 6.15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는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해나가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면서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긴장된 북남관계를 주동적으로 풀고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주체91(2002)년 4월 어느날 평양을 찾아온 남측특사를 만나주시였다.

남조선당국자의 친서를 전달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할데 대하여,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위기사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갈데 대하여,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남측특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확고한 의지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4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남측특사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리행하는 방향에서 그동안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할데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빨리 련결하며 북남경

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사이의 회담개최,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진행 등을 비롯하여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리행되고 진척되는데 따라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내용과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할데 대해 군사당국에 건의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할데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전의 대결관계로 되돌아갈번하였던 북남관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특사를 만나주신것을 계기로 다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 흐름을 따라 남조선 제주도민회 대표들의 평양방문이 성사되였고 동해선 및 서해선 북남철도련결을 위한 착공식과 북남개천절공동행사가 진행되는 등 북남사이의 화해와 교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였다.

좋게 발전해나가던 북남관계는 2003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인한 조선반도의 정세악화로 또다시 랭각되여갔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자 미국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다.》, 《북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조치가 국제공동체성원

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핵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1월에 들어와 남조선군부의 호전세력들과 함께 《우발계획》이라는 대북선제공격계획작성을 적극 다그치는 한편 방대한 규모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3월에 들어와 《독수리》전쟁연습과 《련합전시증원연습》이라는것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또한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중지되였던 전연에서의 비방방송을 재개하였으며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여 년초부터 그 무슨 《송금사건》소동을 일으키면서 6.15공동선언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침략전쟁에 추가파병을 결정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재배치문제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종자세를 취하였다.

이 모든것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6.15북남공동선언을 계속 실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속에서도 그 어느 회담보다 먼저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이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2003년 4월말 평양에서는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은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과의 첫 상급회담이면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조미관계에서 미국이 굴복하여 회담탁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때에 열리게 된것으로 하여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가는데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리행해나갈데 대한 문제, 6.15북남공동선언발표 3돐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잘 진행될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지원해나가는 문제,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북측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 동서해선철도, 도로련결행사와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문제를 비롯하여 6개 항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것을 확약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에 이어 여러 차례의 상급회담들이 진행되여 일련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상급회담과 함께 북과 남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남군사회담들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군사적담보조치들을 취해나가도록 하시였다.

2004년 5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6월에는 제2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진행되였다.

제2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도 완전히 제거하며 서해해상에서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는 이 합의서채택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후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과 남은 3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합의서리행을 추진해나갔다.

그리하여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2005년 8월까지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방대한 선전수단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기본상 끝나게 되였다.

지난 수십여년간 동족간에 불신과 반목, 대결과 긴장을 조장시켜오던 랭전의 유물인 방대한 선전수단들이 제거된것은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는 길에서 거둔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적십자회담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주시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사이에 첫 상급회담이 개최된 때로부터 2005년말까지 17차의 상급회담과 4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및 각 부문별 분과회의와 실무접촉, 10여차의 북남군사당국자들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100여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대화와 거의 모든 회담들에서 매번 합의문건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 전례없는 기록으로서 1971년부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까지 무려 29년간 346회의 회담에서 북과 남이 35건의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사실과 비교해볼 때 6.15이후 북남대화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있음으로 하여 대결과 불신이 지배적이던 북남대화와 협상분위기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화분위기로 변화될수 있었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 많은 대화를 진행하여 우리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해낼수 있었다.

끊어진 지맥을 하나로 잇도록

6.15북남공동선언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화해, 협력의 선언이였다.

그러므로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정은 민족분렬로 하여 생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공동의 리익이 실질적인것으로 와닿도록 화해와 협력의 결과물을 하나하나 마련해가는것으로 되여야 하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비록 크지 않은것이라 할지라도 민족분렬의 력사와 비운이 종합적으로 응축된것들이여서 마음먹는다고 하여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였다.

오로지 절세의 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에 의해서만 풀려질 문제들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동강난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것을 비롯하여 지맥을 이어 분렬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전연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지고 새소리만 울려야

할 전연고지들에 가로세로 질러간 길들과 원한의 군사분계선을 보니 조국산천도 민족분렬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는것같아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동강난 조국강토를 기어이 이으실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었다.

동강난 조국강토를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의지를 굳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4월 평양에 찾아왔던 남측특사를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북남철도련결과 관련하여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만나뵈올수록 너그럽고 인자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 남측특사는 이날 그이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북남철도와 도로련결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남측특사는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련결문제만을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특사에게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만 련결할것이 아니라 동해선철도도 련결하여야 한다고, 동해선철도를 련결하여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신의주—서울 철도만 련결하면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고 하시였다.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참으로 신통하고 생동한 비유였다. 깊은 뜻이 담긴 그 한마디의 비유속에 열백가지의 타이르심이 있었다.

동서의 철도를 다 련결하여야 철도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실리도 크다는 뜻으로서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하신 말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4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남측특사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셋째 조항에 이런 합의내용을 담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위협으로 발단된 북미간의 초강경대립은 김대중<정부>의 대미의존정책과 반통일세력의 부채질과 어울려 남북의 대화마저 중단시킨것이다.

끌을 파악할수 없었던 남북의 소강국면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의 림동원 <대통령>특사의 방북과 특사회담, **김정일**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해 극적으로 돌파했다.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진행된 림동원특사의 방북은 4일 **김정일**국방위원장 면담 및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제기되는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합의, 채택하였다. …

그리고 합의내용과는 별도로 림동원특사가 방북시기 가장 많이 론의한것은 민족공조와 <주적>론철회에 대한 론의라고 알려진다.

즉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민족의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한 민족공조와 <주적>론철회론의를 중심으로 6.15공동선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협의되고 합의된 것이다.》(《민》 2002년 6월)

았다.

《쌍방은 북남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동해지구에서 새로 동해선철도 및 도로를, 서해지구에서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빨리 련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철도와 도로련결 및 협력사업을 토의하기 위하여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분과들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절세의 위인의 애국애족의 결단에 의해 끊어진채 수십년동안 녹쓴 철길과 잡초무성한 도로가 다시 련결되여 삼천리강토의 지맥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소식에 접한 온 겨레는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동강난 철도와 도로, 그것은 그대로 민족분렬과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였다.

끊어진 두줄기 철길의 침목사이에 아름드리나무들이 뿌리내리고 끊어진 도로는 지뢰밭으로 변하여 짐승들도 넘나들지 못하였으니 철도와 도로의 련결은 말그대로 갈라진 강토의 지맥과 끊어진 겨레의 혈맥이 이어지는 통일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사업을 료해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2002년 9월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제1차회

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와 도로련결을 최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는 조치들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이무렵 판문점에서는 북남군사실무회담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설정과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이 합의서가 발표됨으로써 분렬사상 처음으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북남관리구역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작업을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완공하며 동시에 운영할수 있는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였다.

2002년 9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청년역과 개성역에서는 력사적인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민족분렬의 비운인양 고삭아 부스러진 침목우에 시뻘겋게 녹물이 오른 두줄기 철길이 뚝 끊기여 반세기이상 종착역 아닌 종착역으로 되였던 동서의 두 역에서는 같은 시간에 철길과 도로를 련결하는 의식이 있었다.

착공식에 참가한 주석단성원들이 공사의 착공을 기념하여 철도와 도로가 련결된 로반에서 첫삽을 떴다. 이어 착공의 첫 발파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조국강산의 허리를 휘여감고있던 분렬의 장벽을 통채로 날려보내는듯 대지를 진감하며 하늘가 멀리 울려퍼지는 착공

의 첫 발파소리.

정녕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으로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드리워지고 민족의 생존이 경각에 달하였던 때 그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시였다면 6.15북남공동선언은 또다시 종이장우의 빈 약속으로 되였을것이고 우리 겨레는 전쟁과 분렬을 강요하는 외세의 희생물이 되고말았을것이다.

하기에 철도와 도로련결을 위한 착공식을 지켜보는 온 겨레의 감격과 기쁨을 담아 착공의 발파소리가 삼천리강산의 하늘가 멀리로 더욱 세차게 메아리쳐간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뭉클한 감격으로 온몸의 혈관이 박동친다.》, 《대립과 갈등의 분단 반세기를 넘어 남북협력과 화해의 시대를 연 의미있는 일》 등으로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착공식이 진행된 다음에도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 공사를 중단없이 적극 추진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기회에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공사를 다그

쳐 끝내기 위하여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협의하여 풀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일정대로 진척되여나갔다.

동, 서해안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대결의 상징물인 지뢰들이 제거되기 시작하였고 잡초만 무성하던 황량한 벌판과 골짜기로 대통로가 뚫리고 두줄기 궤도가 시원스럽게 뻗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던 미국이 찬물을 끼얹으며 간섭해나섰다.

철도 및 도로련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자 미국은 《정전위원회의 허가》라는 왕청같은 문제를 급작스레 들고나오는가 하면 북남철도와 도로가 련결되면 그 통로가 《남침목적에 리용》될수 있다는 망발을 내뱉으면서 이 사업에 빗장을 지르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는 미국의 오만성에 온 겨레의 민족적분노가 폭발하였다.

2002년 11월 16일 공화국철도성 대변인성명 《우리는 북남철도, 도로련결공사를 방해하는 미국의 간섭책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가 발표되였다.

이어 12월 1일에는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북측단장이 미국이야말로 북과 남 온 민족의 공동의 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쑤라고 단죄하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떨쳐일어

나 북남철도, 도로련결을 방해해나서는 미국의 부당한 책동에 전 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대답할것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녘의 민심도 이에 호응하여 미국을 단죄규탄하였다.

북과 남에서 일제히 쏟아지는 치솟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에 미국의 방해책동은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미국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공사는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드디여 2003년 2월 5일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동해선림시도로가 완공되여 금강산륙로관광을 위한 시험답사가, 2월 14일에는 시범륙로관광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2월 21일에는 개성—문산사이 림시도로가 개통되여 개성공업지구건설을 위한 현지답사가 진행되였다. 또한 6월 14일 동해선과 서해선철도련결행사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마침내 끊어졌던 삼천리강토의 지맥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였다.

남조선의 《CBS》방송은 북남철도련결행사에 대하여 《지난 1950년 6.25전쟁으로 끊어진 남북의 철길이 6월 14일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에서 다시 련결되였다.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옛 장단역자리에는 지난 50년 전쟁당시 북쪽으로 향하던

렬차가 지금도 녹이 쓴채 멈추어 서있다. 이 철도를 통해 앞으로 렬차가 달리는 모습을 다시 볼 날도 머지않아 오게 되였다. … 오늘 궤도련결로 렬차가 곧 달릴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의 혈맥이 다시 이어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엔떼웨 TV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 철도를 련결하였다. 6월 14일 북남조선이 끊어졌던 반도의 철도를 련결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군사분계선에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북과 남의 철도련결로 우리의 강토가 하나로 이어진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였다.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가 하나로 이어진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속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갈 때 통일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통일기 함께 날리며

6.15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자주통일시대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구현되여나가는 겨레의 통일운동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지는것은 북과 남은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의 새로운 모습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겨레를 민족적단합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에 받들려 땅길, 하늘길, 바다길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자동차와 비행기, 배가 오가며 사람들이 래왕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계층별 통일대회의 장을 크게 펼쳐주시고 련대련합의 메아리가 백두에서 한나까지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의 로동계급이 단합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2001년 4월 전 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계기로 북남로동자통일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구상을

제시하시고 그 성과적보장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5월 1일 금강산에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남로동자 5.1절통일대회가 진행되였다.

북남로동자들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분출한 대회는 북측에서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700여명, 남측에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대표단, 현대측 건설로동자 등 600여명이 참가하여 큰 규모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여기에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련맹대표단이 초대되였다.

북남로동계급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시각을 맞이한 금강산은 환희로 설레였다.

손에손에 통일기를 흔들며 보무당당히 대회장에 입장하는 북남로동자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긍지와 의지가 어려있었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외세를 반대하고 북과 남이 힘을 모으는데 조국통일이 있다고 하면서 6.15의 자주통일열풍에 북남로동자들이 가슴과 가슴을 합쳐나갈 때 통일의 배는 그 어떤 외세의 암초도 물거품처럼 마스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이어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통일의 열기가 차넘친 이날의 대회장은 말그대로 북남로동자들의 단합의 광장, 통일의 광장이였다.

조국통일운동의 앞장에 로동계급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깊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3년에도 평양에서 북남로동자대표자회의를 마련해주신데 이어 2004년에는 또다시 북남로동자통일대회를 진행하도록 해주시였다.

북남로동자들은 대표자회의와 통일대회들을 통하여 북남로동자들의 자주적통일운동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진행되고있으며 그 어떤 외세의 전쟁위협도 극복해나가리라는 굳센 통일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북남로동자통일대회를 계기로 계층별 통일대회의 막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농민통일대회와 북남녀성통일대회,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통일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회합들을 평양과 금강산에서 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 각계각층의 조직적련대련합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뜨거운 통일애국의지와 넓은 도량에 이끌리여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련맹(전농)이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단체들의 공동행사를 진행할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남조선의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전녀농)이 적극 합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농민단체들의 공동행사를 소집할데 대한 전농의 제안과 그에 적극적인 참가

의지를 표명한 전녀농의 주장과 립장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성사시키며 그 행사에 많은 남조선농민들을 참가시키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 북남농민통일대회의 개최날자와 장소, 명칭은 물론 농민들의 특성에 맞게 씨름, 윷놀이, 바줄당기기, 농악무 등 민족적인 행사들을 기본으로 하여 대회를 특색있게 진행하도록 일일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전농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농대표단 540여명, 전녀농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녀농대표단 60여명, 14개 언론사의 기자들과 예술인들을 망라한 680여명의 큰 규모 대표단이 금강산으로 모여왔다.

이와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일군들을 포함하여 대회명예손님으로 민주로총, 《한국로총》대표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실무대표단 등 수십여명도 도착하였다.

2001년 7월중순 금강산에서 북남농민통일대회가 진행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행한 통일행사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북남예술인들의 민족성이 진하게 풍기는 합동예술공연과 민족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것은 북과 남의 농민들이 마음과 뜻,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뜨거운 열기가 굽이친 화해와 단합, 통일

의 마당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조국의 강토에서 만풍년을 노래하며 밭갈이를 하고싶어하는 북남농민들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주기 위하여 2004년 북남농민통일대회를 또다시 마련해 주시였다.

2004년 6월말 금강산에서는 북과 남의 800여명의 농민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북남농민통일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반미자주, 민족공조의 열기가 뜨겁게 솟구친 대회에서는 북남농민통일대회 공동선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농민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대문을 기어이 열려는 우리 겨레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금 시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2년 10월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갈 북남녀성들의 통일대회도 개최하도록 하신데 이어 6.15북남공동선언관철을 위한 길에서 민족문학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북과 남, 해외작가들의 대회를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대회가 성과를 거두도록 손잡아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3(2004)년 2월중순 민족문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면서 북의 작가들이 남조선의 여러 문학단체들과 그에 속해있는 작가들을 만나는 문제로부터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남작가들의 역할문제, 북, 남, 해외 공동의 민간급문학인련대조직을 내오는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6.15공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가 끝나자 다른 통일행사들보다 먼저 민족작가대회를 평양에서 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대회장소를 인민문화궁전으로 정해주시였으며 남조선과 해외작가들의 숙식문제며 공화국의 비행기로 남조선 작가들을 데려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를 며칠 앞둔 어느날 한 일군으로부터 민족작가대회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해방후 처음으로 하는 민족작가대회인것만큼 의의있게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마침내 2005년 7월 평양에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 남, 해외작가들의 대회합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민족통일문학의 탄생을 알리는 《통일문학의 새벽》행사를 환희와 격동속에 가지였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벌린 각계층의 공고한 련대련합을 위한 투쟁은 미국을 비롯한 내외반통일세력의 집요한 방해와 도전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생명력에 의해 더욱더 확대강화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열어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으로 오가며 다양한 체육문화의 장을 펼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넓으신 도량으로 남조선땅에 선수단과 취주악단, 대규모의 응원단도 보내시여 우리 민족은 하나임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2002년 9월말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문제는 단순히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우리가 참가하느냐 그만두느냐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선수단이 경기대회에 참가할뿐 아니라 녀성취주악단과 대규모응원단도 함께 남조선에 나가 통일바람을 일으키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겨레의 굳센 통일의지를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는 계기로 될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9월 29일 저녁 부산에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백두산을 떠나서는 조국도 민족도 없다는 력사적선언인듯 백두산에서 채화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가 부산의 상공높이 타래쳐올랐다.

북과 남의 남녀선수가 공동점화를 한것도 뜻깊었고 《아리랑》선률에 맞추어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한것도 감동적이였다.

북과 남의 선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하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환호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7천만겨레는 민족도 피줄도 언어도 력사도 문화도 땅도 하나라는것을 만방에 과시한 력사적순간이였다.

경기대회 전기간 공화국의 응원단은 남조선인민들과 마음을 합쳐 응원하여 우리 겨레는 하나이라는것을 세상사람들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응원단이 《우리는—》 하면 남조선인민들은 《하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통일의 함성은 부산땅만 아니라 온 남조선땅을 진감하였다.

응원단은 경기응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민족적향취가

진하게 풍기는 예술공연도 진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응원단의 눈부신 활동을 보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보낸 일당백의 응원단》, 《붉은 미녀》, 《최고인기군단》, 《아시아게임의 최고스타》 등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온 부산땅이 절세의 위인께서 보내주신 응원단이 일으킨 통일열풍으로 들끓었다.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의 응원단과 마음을 합쳐 웨친

◆ 《2002부산아시아게임의 장외스타로 떠오른 북응원단에 관한 이야기다. …

경기가 열리고있는 부산, 경남지역의 주요경기장은 국제경기답지 않게 대부분 텅텅 비였지만 미녀응원단이 찾는 경기장만은 넘쳐난다. 먼발치에서나마 이들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때문이다.

북녀성응원단은 경찰과 보안요원들의 호위하에 경기장 한편에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앉아 응원을 한다. 응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딴전을 피우지 않고 다소곳이 앉아 응원에만 열중하는 그들에게서 낯선 남쪽땅을 찾은데서 오는 긴장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풋풋함속에서 묻어나는 자연미는 그들만의 매력포인트다. 이 자연미가 <북녀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요소다.》(《뉴스 메이커》 2002년 10월 17일)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독특한 미모와 친근한 매너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북미녀응원단 280명이 남<한>사회에 <미인계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다!》의 함성은 정녕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 정당성에 대한 민족적지지의 환호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북녘동포들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참가로 남조선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던 부산시민의 90%이상이 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가지게 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신문들은 저저마다 사진들을 크게 싣고 응원단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부산땅은 절세의 위인께서 보내주신 선수단과 응원단에 의해 통일열풍의 진원지로 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놓아주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따라

있다.

이들이 가는 경기장은 경기자체보다는 이들에게 더 관심이 쏠리고있고 비인기종목이여도 입장권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니 가히 인기를 짐작할만하다.

이들의 인기가 <북미인들로 구성됐다.>는 단순한 호기심때문이라고 여기는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다.

이들이 남쪽사회에 던지고있는 문화적충격과 파장의 리면에는 북문화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문화일보》 2002년 10월 3일부)

◆ 《불과 보름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뿌리깊은 반김대중정서로 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비판적인것으로 알려진 부산에 몰아친 <북풍>, 그 바람의 진원지는 바로 아시아게임 북측응원단이였다.

경기장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과 린근 김해, 울산, 마산, 창원은 물론 대구, 대전, 서울에서까지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민족21》 2002년 11월)

북과 남에 민족의 혈맥을 잇는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떴다.

이 쌍무지개에 올라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은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또다시 참가하여 온 대구는 물론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응원단바람》, 《평양바람》, 《북조선바람》이 태풍처럼 휘몰아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3년 10월 제주도에서 북과 남이 함께 개최하는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에 큰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주시여 축전이 명실공히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에 기여하는 통일행사로 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주도축전에 체육선수단과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취주악단 등을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백두산에서 채화한 성화를 금강산에서 넘겨주도록 하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10월 24일 제주도에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아리랑》노래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공화국의 녀자선수 3명과 남측의 남자선수 3명, 남녀어린이 6명이 대형통일기를 펼쳐들고 개막식장에 들어오고 노래 《반갑습니다》의 선률속에 남측선수단이 먼저 입장하였다.

이어 노래 《통일무지개》의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공화국의 선수단이 3만명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대표들이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한 성화봉을 들고 개막식장에 입장하여 봉화대에 불을 지폈다.

조선지도의 제주도위치에서 지펴진 불은 점차 우로 타래쳐 올라 백두산정점에서 점화되여 봉화대에 활활 타올랐다.

순간 개막식장안에서 울려퍼지는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의 함성이 온 제주도땅을 뒤흔들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련일 축전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축전기간 축구, 탁구, 마라손, 씨름 등 체육행사들이 벌어졌다. 또한 북남태권도선수들의 시범출연과 공화국선수들의 그네와 널뛰기시범출연도 있었다. 축전의 일환으로 평양미술및 수공예품전시회도 성황리에 열리였다.

온 제주도는 뜨거운 통일열기에 휩싸였다.

행사장들에서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휘파람》, 《준마처녀》와 같은 공화국의 노래들이 꽝꽝 울려나왔으며 행사장들에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6.15공동선언의 이름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는 하나》,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축전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북과 남의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도 하나이며 통일애국의 마음과 뜻도 하나임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 통신들은 《민속경기로 민족동질성 회복》, 《우리는 하나다》, 《통일념원은 계속된다》 등의 제

목으로 제주도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으로 넓어진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에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데 대하여 남조선신문 《한겨레》(2004년 6월 14일부)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북에서 남쪽을 방문한 인원수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근 5배, 같은 기간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수는 4.5배 늘어난것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절세의 위인께서 열어주신 넓어진 래왕길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통로이라는것을 잘 말해주었다.

온 겨레는 그이께서 열어주신 자주통일의 대통로따라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통일성업의 완성을 위해 더욱 힘있게 전진해나갔다.

거족적통일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6.15와 8.15 등 중요한 계기들마다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인천 등을 오가며 대규모 민족통일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를 계기로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05년에 진행되는 통일행사들이 민간단체들은 물론 북과 남의 당국대표들까지 참가하는 명실공히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2005년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과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겨레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전 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 그에 기초하여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정치적의의가 있게 성대히 진행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2004년 11월 금강산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과 여러 통일운동단체들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통일운동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광범하게 합의추진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2005년의 적절한 시기에 내오며 당면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지역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였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 지역준비위원회들이 나왔다.

2005년 3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전 민족적통일운동련대기구로서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합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였다.

이리하여 6.15공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를 종전의 통일행사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민족대단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행사로 성대히 치를수 있는 조직적기반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통일대축전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치행사들과 체육문화행사들을 배합하여 특색있게 진행하며 행사명칭과 행사기간, 참가대상과 축전참가자들의 참관사업, 해내외대표들에게 축전대표증과 기념휘장을 수여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시였다.

드디여 2005년 6월 14일 평양에서는 북남당국대표들과 북, 남, 해외대표들 그리고 평양시민들의 참가밑에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자주, 평화, 통일을 열어나가는 민족대행진에 이어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축전개막식에는 북측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과 90여개 단체의 대표 130여명, 남측에서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과 160여개 단체의 300여명의 대표들, 해외측에서 7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 그리고 수만명의 평양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당국대표단과 지난 시기 조국통일운동과 6.15북남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해내외의 유명인사들이 참가함으로써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축전개막사에서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당과 각계각층이 함께 하고 당국과 민간이 함께 하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전 지역이 모인 이 축전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임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실천해나갈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를 확인하는 민족대회합의 새로운 마당이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축전개막에 이어 이를 축하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는데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야회장에 뛰여들어 청년들과 함께 흥겨운 춤판을 펼치자 야회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다음날 4.25문화회관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북남당국대표들을 포함하여 북측과 남측, 해외측 대표와 평양시민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애국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에서는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지난 5년간 조국통일을 위한 진군길에서 큰걸음을 내디딘데 대해 지적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오늘 온 겨레는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라는것,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민족공동으로 기념할것이라는것,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당국사이, 민간사이의 공동보조를 도모하고 련대를 강화하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이라는것 등을 천명하였다.

민족통일대축전행사기간 6.15공동선언발표 5돐을 기념하는 북남당국공동행사와 북, 남, 해외공동사진전시회가 열리였으며 북, 남, 해외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교원, 정치인 등 계층 또는 부문별 상봉모임들이 진행되였다.

16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는 북과 남, 해외대표들의 6.15상통일배구경기 및 체육유희경기가 진행되였고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지원증서수여모임도 있었다.

6.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60년의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당국의 참가밑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론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한 거족적인 대회합이였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신문, 방송, 통신들도 광범히 보도하였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여 자기들의 통일의지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겨레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승화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94(2005)년 6월 17일 6.15공동선언발표 5돐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당국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남조선당국자의 특사인 통일부 장관을 만나주시였다.

이것은 축전의 최절정을 장식한 일대 사변이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특사는 남조선당국자의 구두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만나는 순간에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특사는 정중히 례의를 표시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사이에 통일행사들을 계속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사일행을 향해 여러분들이 6.15공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에 온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사실 6.15공동선언의 내용은 훌륭하다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는 선

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8.15에 우리 대표단을 내보내겠다고, 이번에 남쪽에서 온 당국대표단규모에 맞추어 대표단을 구성하여 내보내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통일운동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켜 북남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15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금강산에서도 하고 화상상봉을 통해서도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특사일행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따뜻한 동포애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풍모에 감복한 남측성원들은 흥분된 어조로 어쩌면 그리도 모든 말씀을 가슴이 시원하게 하시는가, 막혔던 속이 다 내려간다고 하면서 그이를 우러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특사일행을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말씀을 주신 이날은 겨레의 통일운동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격동적인 날로 기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부 장관을 만나주신 소식은 남조선에 제2의 《6.15열풍》, 《**김정일**열풍》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주요신문들은 장군님께서 남측특사일행을 만나주신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17일 이뤄진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정동영과의 면담은 여러모로 파격적이였다.》(《중앙일보》 2005년 6월 18일부), 《이번 면담은 남북대화의 전면복원과 심화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한겨레》 2005년 6월 18일부), 《…남북관계진전과 <한>반도평화증진에 일대 돌파구를 연 중대한 사건이였다.》(《중앙일보》 2005년 6월 20일부)…

◆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정동영장관의 면담에서 6자회담을 비롯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등을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제2의 6.15시대>를 맞게 된것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남북공존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의 구현이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제시하거나 공감한 이같은 합의내용들은 앞으로 남북간 실무회담을 거쳐 가시화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급진전되면서 그동안 막혔던 정부간 추진경협사업들도 다시금 재개되거나 활성화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북한》 2005년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전격적이였다. 우리의 현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만난 것은 2000년 9월 박재규 전 장관 이후 5년만이다.

정 장 관 은 이 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총 4시간 50분동안 만났다. …

정동영장관은 서울에 돌아온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처리할 문제는 직접 결단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조선일보》 2005년 6월 18일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축전에 이어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8.15민족대축전이라는 거족적인 통일대잔치를 련이어 펴놓게 하시여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승화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는 8.15통일행사가 협력교류과정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할것을 확약하는 거족적인 통일잔치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대축전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다짐하는 《제2의 평양축전》으로 되였다.

8월 14일 통일대행진을 진행할 때 북측대표단전원은 통일기를 흔들며 민간대표단과 함께 대행진에 나섰으며 민족자주를 내용으로 하는 연설들을 하였다.

남측당국대표들도 처음으로 통일운동단체들과 나란히 대행진에 참가하는 하나의 《사변》이 일어났다.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 축하연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하여 보수언론들까지 놀라게 하였다.

8월 15일에 진행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이 온 서울장안을 진동하는 격동된 분위기속에서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

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호소문에서는 60년전 8.15는 분렬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그 어떤 장애물도 이미 시작된 겨레의 발걸음을 멈춰세울수 없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사의 대장정을 중단없이 이어나갈것을 7천만겨레에게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 다음날에 진행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의 각계각층의 상봉모임에서도, 북남간의 체육경기들에서도 겨레의 통일열기는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8.15민족대축전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약속하는 거족적인 통일잔치로 진행된데 대하여 《조선일보》(2005년 8월 17일부)까지도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이 서울에서 개최중인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이 <미군철수>, <외세배격> 등 북의 주장을 선전하는 무대로 리용됐다.》고 하였다.

5년전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가 북남화해협력의 출발이였다면 이해에 진행한 6.15—8.15통일대축전은 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갈것을 기약하는 계기로 되였다.

참으로 2005년은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력사에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해였다.

온 겨레가 부른 《아리랑》

이 나라의 하늘가에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주체94(2005)년 8월 16일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0돐,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진정한 애국자들의 근 80년투쟁사와 우리 민족의 100여년현대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창조된 기념비적걸작이였다.

10여만명이 출연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공연 첫날부터 공화국의 인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려고 기차와 뻐스, 자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왔다.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온 세계가 평양을 진원지로 하는 《아리랑열풍》에 휩싸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인민들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도 평양으로 달려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도록 하시여 《아리랑》이 우리 민족끼리시대에 겨레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남조선인민들에게 《아리랑》공연을 보여줄데 대하여서와 이번에 제16차 북남상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남측당국대표단 성원들이 《아리랑》공연을 다 보고 갔고 남측 통일부 장관도 《아리랑》공연을 보는것을 허락하겠다고 한것만큼 조직사업을 잘하여 다 데려다 보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일군이 흥분으로 높뛰는 마음을 다잡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오면 우리가 대우를 잘해주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하루밤 재워서 보내면 좋아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적지 않은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을 다녀갔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인적은 없었다. 더우기 공연관람을 위해 대규모인원이 들어온 일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북남관계발전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데 맞게 각이한 사상과 정견, 신앙을 가진 남조선인민들이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아리랑》 공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을 헤아려보신 민족의 어버이의 다심하신 사랑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아리랑》 공연관람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아리랑》 공연관람단을 받아들이는 통로도 정해주시고 체류기일, 참관장소도 정해주시였으며 초청영접안내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시였다.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평양에 오는 남조선인민들을 숙식시키기로 하였던 양각도국제호텔에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국내대표들을 들이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군들은 경축행사를 보장해야 하는것만큼 이것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남측관람자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주관하던 남측의 여러 단체들에 숙소관계로 10월 5일경부터 12일까지는 《아리랑》 공연관람이 어려울것같으므로 평양참관단일정을 조절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기간에 평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고, 자기들은 양각도 국제호텔 한개 방에 4명이나 6명이 들어도 좋고 복도를 침실로 해서 한개 층에 수십명씩 숙식하거나 5월1일경기장에서 천막을 치고 자도 좋다고 하면서 평양참관을 계속해줄것

일화

평양산원에서 대여난 남녘아기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성대히 진행되던 2005년 10월 10일 저녁이였다.

경적소리를 다급히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는 구급차에 실려 평양산원에 입원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로 1998년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남조선의 황선(당시 통일련대 대변인)녀성이였다.

그는 원래 해산예정일이 이미 지난 몸이였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아리랑》공연관람을 위해 평양으로 왔었다.

그는 입원한지 1시간도 못되여 딸(몸무게 3.36kg)을 순산하였다.

민족분렬 60년이래, 평양산원이 개원한이래 처음으로 남녘아기가 태여났다는 반갑고도 희한한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졌다.

온 겨레가 평양에서 첫 고고성을 터친 통일동이의 미래를 축복하였다.

남쪽땅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평시에 《아리랑》공연에 대해 침묵하던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까

을 거듭 간청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각도국제호텔에 들기로 예정되였던 조선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 국내대표들을 모두 다른 려관에 옮기고 양각도국제호텔과 보통강호텔을 통채로 남측의 평양참관단이 리용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지 《평양에서 출산한 최초의 남<한>녀성》, 《황씨가 통일동이를 낳게 되였다.》 등으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였다.

황선녀성은 입원해있는 기간 공화국의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산후치료는 물론 종합적인 의료봉사까지 받았다.

공화국의 모든 산모들과 꼭같이 산꿀이며 귀한 보약재, 영양제들을 공급받았다.

산모의 건강상태와 아기의 발육상태는 나날이 좋아만 갔다.

10월 25일 아기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는 황선녀성은 평양산원에서 보낸 보름동안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환송속에 산원문을 나서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뜻밖의 행운으로 평양산원에서 몸을 풀고 귀한 통일동이를 받아안게 되였다. 꿈만 같은 오늘의 이 경사를 안아온 6.15에 감사를 드린다. 6.15는 민족통일의 현실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동포애의 정으로 저와 딸애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돌보아준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에게 저의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

남조선에 나간 후 황선부부는 아기에게 우리 겨레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윤겨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관심과 은정어린 조치가 있어 남조선인민들의 공연관람조직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2005년 9월 26일부터 하루에 수백명씩 평양에 와서 1박2일간에 걸쳐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고 여러곳을 참관하게 되였다.

각계층의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은 5년전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채택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은 《아리랑》으로 화해와 단합의 화원을 온 삼천리에 펼쳐주시였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비행장에 내린 참관단성원들은 한결같이 평양방문이 실현된 꿈같은 현실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참관단의 한 성원은 우리는 평양에 《아리랑》을 관람하러 떠나기 전에 3일동안 너무 기뻐 잠을 자지 못했다, 특히 하층국민들속에서 너도나도 평양으로 오겠다고 나서고있는데 이제 《아리랑》대잔치판이 펼쳐질것같다, 5년전 6.15처럼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아리랑》이라는 폭죽을 터뜨려 온 남녘땅을 빨갛게 물들여놓았다, 이남민중의 마음을 순간에 련북으로 돌려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참으로 뛰여난분이시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평양참관단 성원들의 감동과 흥분은 《아리랑》공연관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 5월1일경기장은 동포애의 정으로 차고넘쳤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우리는—》 하고 구호를 웨치면 남측의 참관단성원들은 《하나다!》라고 화답하고 뒤이어 《조국—》 하면 《통일!》 하고 화답해나섰다.

서로 손을 흔들어주고 울고웃으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한 남조선인민들은 그 공연이 꿈 아닌 현실이라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공연에 매혹되여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대한 금강석》, 《민족의 저력과 미래에 대한 상징》, 《북체제의 위력함, 북사회에 관통되여있는 강한 정신력을 1시간 20분동안에 충분히 읽었다.》, 《눈앞이 아찔하고 마음이 흥분되여 하늘나라 천궁에 온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공연》이라고 저저마다 감탄을 련발하였다.

공연관람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뻐스안에서도 그들은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여서 눈물없이는 볼수 없었다고 하면서 남쪽에 돌아가 북녘동포들의 마음을 널리 전하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고 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아리랑잔치> 분단을 잊었다》, 《화려한 교예, 흥겨운 연주 <강성한 나라> 열망 <꿈틀>》, 《지구최고

의 마술, 아리랑》 등의 제목을 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소개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화려한 공중교예나 박력있는 취주악단의 연주, 아름다운 률동이나 활력있는 체조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장관이 공연 내내 펼쳐졌다.》(《한겨레》 2005년 10월 5일부),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여온 획일성과 전체성이 왜 북의 공연을 관람할 때 민족의 힘으로 뒤바뀌는가.》(《주간조선》 2005년 10월 17일), 《수만명의 평양시내 학생들이 펼치는 정교한 카드섹션(배경대)과 우렁찬 함성, 현란하고 아찔한 교예, 최첨단영상과 레이자빛으로 뿜어내는 아름다운 영상은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종합마술처럼 비친다.》(《한겨레21》 2005년 10월 18일), 《…해방 60돐에 맞춰 8월 16일 시작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답게 <아리랑>은 웅장한 규모와 일사불란함으로 관중을 압도했다. 특히 외국관광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중앙일보》 2005년 10월 5일부)…

《아리랑열풍》은 오래동안 반공사상에 물젖어 공화국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해오던 사람들까지 평양으로 떠밀었으며 그들의 의식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평양에 들어와 《아리랑》공연을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얼마나 요란하게 선전했던지 지난 시기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있던 사람들도 평양에 오지 못해 안달이 나서 몰래라

도 오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작》까지 하였다.

그러다나니 평양참관단에는 우익보수인물들도 적지 않게 망라되였으며 지어 정보원에서 오래동안 일한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어느 한 단체의 관계자는 당국이 북으로 달리는 민심에 제동을 걸어보았지만 저들도 《아리랑》에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어 정보원에서는 오래동안 일한 공로있는 사람들만 골라 표창으로 《아리랑》공연관람을 보낸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보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떼를 지어 들어오고 《대통령》까지 변성명하고 들어올것같다고 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도 공연의 황홀함에 심취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고

◆ 《공연을 본 남측관람자들은 <1시간반가량 펼쳐진 현란한 레이자그림과 일사불란한 몸놀림에 눈과 귀가 즐거웠다.>고 평가했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4일부)

《지구최고의 마술, 아리랑!

숨막히는 5장 13경으로 60년 력사를 파노라마(전경화)처럼 보여주는 <세기의 걸작>, 체제와 결부된 북문화의 정수.

<아리랑>공연이 펼쳐지는 평양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 들어서면 누구든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

<아리랑>은 한번쯤 꼭 볼만한 <세기의 작품>이였다.》(《한겨레21》 2005년 10월 18일)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결코 그 어떤 강제나 돈으로는 해낼수 없다고, 북이 이처럼 강대한줄은 몰랐다고, 통일되면 우리 나라가 단연 우수하고 위대한 최강국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속마음을 터놓았다.

《아리랑》공연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다.

하지만 민족분렬 60년간 반목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신비한 예술의 힘, 따뜻한 동포애로 녹여내는 단합의 1시간 20분이였다.

평양참관단 성원들은 공화국의 여러곳도 참관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사회,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숨쉬고 불패의 위력으로 세계에 존엄떨치는 사회, 온 나라가 한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의 저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이처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온 남녘땅을 《아리랑열풍》, 《**김정일**숭배열풍》으로 달아오르게 하였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날로 확산되는 《아리랑열풍》을 잠재우고 남조선인민들의 평양방문길을 어떻게 하나 차단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아리랑》 공연은 《체제선전용》이라고 비난해나섰는가 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북의 《아리랑》 공연관람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느니, 남측의 각계 단체들이 북에 막대한 자금을 섬겨바친다느니 하는 허튼소리를 마구 해댔다. 그러면서 10월 17일이후에는 《아리랑》 참관을 허용할수 없다고 이 사업을 주선하는 단체들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지어 《국가안보의 마지막보루》라고 일컫는 남조선군에서 사병들이 《아리랑》 공연록화물을 보려고 너도나도 구실을 붙여 휴가를 가는 바람이 불자 이런 군기문란은 전무후무한것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기무사(당시)를 군기조사에 내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아리랑열풍》은 우익보수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온 남녘땅에 더욱 세차게 불어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아리랑》 공연관람열망을 헤아리시여 10월말까지 계속 참관단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시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에 한생을 바쳐온 통일운동가들을 《아리랑》 공연관람에 초청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10월 17일이후에도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아리랑》 공연을 계속 관람하였다. 10월말까지의 한달 남짓한 기

간에 무려 8 5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에 들어와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는 류례없는 통일잔치마당이 펼쳐질수 있었다.

지난날 우리 겨레가 슬픔과 설음속에 불렀던 《아리랑》은 절세의 위인의 이렇듯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겨레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으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룰것을 약속하는 통일의 《아리랑》으로 삼천리강산에 울려퍼질수 있었다.

3.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습니다.》

김 정 은

1) 평화번영의 진로 밝힌 력사적사변 …… 215

2) 온 겨레를 평화번영과 단합실현에로 ……225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225
서울에 나간 특사조의방문단 ……238
변함없이 안겨주신 믿음 ……244

1) 평화번영의 진로 밝힌 력사적사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놓아준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겨레의 통일운동은 나날이 고조되여갔다.

이 나날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는 겨레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이 세차게 굽이쳤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해빛을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대세를 이룬 겨레의 민심에 밀리워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자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자기의 간절한 의향을 여러 차례 표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변화된 북남관계와 조성된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겨레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실 웅지를 안으시고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다.

주체96(2007)년 8월 5일 평양에서는 남조선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무

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수뇌상봉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북남합의서의 발표는 세계의 이목을 또다시 집중시켰다.

온 겨레는 북남수뇌상봉의 개최를 민족의 대경사로 환호하면서 바야흐로 민족번영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는 격정과 흥분으로 가슴설레였다.

남조선의 《련합뉴스》(2007년 8월 8일)는 《부산, 대구, 경기도 등 지방에 사는 학계인사와 시민단체관계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남북수뇌상봉개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내실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원했다.》고 전하였다. 《세계일보》(2007년 8월 8일부)도 《포털싸이트도 뜨거웠다. 순식간에 천개이상이 남북수뇌상봉을 환영했다.》고 북남수뇌상봉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전하였다.

세계 각국의 통신들도 《남북수뇌상봉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 《이는 7천만 남북국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일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7년만에 다시 열리는 북남수뇌상봉의 성과를 기원하였다.

온 겨레의 환희와 기대속에 북남수뇌상봉준비가 한창이던 그해 8월 공화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100년래에 들이닥친 큰 물로 뜻밖에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이미 세상에 공포하였던 북남수뇌상봉날자를 10월로 미루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8월 28일—30일로 예견하였던 북남수뇌상봉은 10월 2일—4일로 연기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하는 행사로, 우리 식으로 새롭게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남조선당국자는 개성공업지구를 통과하는 북남련결도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자는 10월 2일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륙로로 평양을 찾아왔다.

개성과 평양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남조선당국자일행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4.25문화회관광장에 몸소

나오시여 남조선당국자를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세계는 예상을 뒤엎은 환영행사에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미국 CNN TV방송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실황중계하였으며 일본의 교도통신, 프랑스 AFP통신, 도이칠란드 DPA통신 등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공식환영행사에 나오시여 로무현<대통령>을 파격적으로 영접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뉴시스》를 비롯한 방송, 통신들도 《7년만에 이루어진 남북수뇌간 만남은 지난 2000년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깜짝영접>으로 시작됐다.》고 환영행사소식을 크게 보도하였다.

온 행성이 《**김정일**충격》으로 다시한번 격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뜨겁게 인사를 나누시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 후 환호하는 평양시민들앞에 그를 내세워주시였다.

이 감동적인 장면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해하였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사열은 물론 남측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분렬을 받는 등 로무현<대통령>은 최고수준의 영접을 받았다.》, 《환영식장에서 걸음을 옮길

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로무현<대통령>을 평양시민들앞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평양시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환영식장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방문자인 로무현<대통령>을 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배려에서 나온 행동임이 분명해보였다.》…

남조선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도 《마치 먼곳에서 오는 귀중한 가족을 동구밖 마을입구에서부터 집대문, 사랑방문 지방에 이르기까지 반갑게 맞이해들이는 우리 민족의 옛 풍습을 보는듯하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동포애의 정으로 자기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온 세계가 보란듯이 예상을 뛰여넘는 대규모의 환영행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앞에 남조선당국자는 감격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월 3일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에 걸쳐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며 이번 상봉이 민족적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좋은 계기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신 장군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는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이렇게 되여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이 북남수뇌상봉선언에 뚜렷이 명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인도주의협력사업문제,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선언내용에 포함되도록 해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뜨거운 민족애앞에서 남조선 당국자와 일행은 시종 공감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와 대범하고 아량있는 용단, 숭고한 민족애가 그대로 문구마다 글줄마다 반영된 력사적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마련될수 있었다.

이 선언의 기본사상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혀

준 우리 민족끼리이며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월 4일 남조선당국자와 함께 력사적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으로, 실천강령으로 민족앞에 제시되게 됨으로써 겨레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와 세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 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전국경제인련합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공식론평을 통하여 이번 선언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분수령이 되였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남조선의 전문가, 학자, 대학교수들도 10.4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와 뜨거운 민족애에 의하여 이와 같은 민족사적리정표가 나올수 있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찬양하였다.

북남수뇌상봉기간 남측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행사참석

여부와 그이의 표정까지 일일이 보도하면서 수뇌상봉 전 과정을 앞을 다투어 전 세계에 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TV를 통해 또다시 뵈옵게 된 온 남조선땅은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었다.

10.4선언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반향도 대단하였다.

6.15미국위원회는 《2000년 남북수뇌상봉이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려명을 보게 한 거대한 력사의 꿈틀거림이였다면 이번 2007년 남북수뇌상봉은 민족번영과 평화, 통일을 향한 한단계 높은 힘찬 발걸음》이라고 격찬하였다.

6.15일본위원회도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선언이 발표된 민족적사변에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감을 가지고 열렬히 지지환영한다고 밝혔으며 6.15유럽위원회 역시 해외동포들의 통일념원을 담아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세계 각국의 주요통신들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지지통신,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수뇌상봉은 철두철미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주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발

표로 조선반도력사에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지게 되였다, 지난 2000년에 채택된 6.15공동선언에서 진일보하였다고 저저마다 보도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외교부 대변인은 북남수뇌상봉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를 환영하며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유익할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익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북남수뇌상봉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일화

자리를 헛갈린 수행원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던 4.25문화회관광장에서 남조선당국자와 동포애가 넘치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위해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였다.

흥분된 마음을 안고 서있던 남측수행원들은 먼저 인사를 올리려고 그이앞으로 저저마다 다가섰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두손으로 꼭 잡고 자기들을 만나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행사의례관례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행사장에서 공식수행원들은 직급에 따라 서게 되여있었으나 서로 앞에 나서려고 자리다툼을 하다보니 앞자리에 서야 할 장관들은 뒤전에 밀려나고 대신 청와대실무관계자들이 앞에 서있는 장면들이 사진과 TV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졌던것이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심은 이렇듯 강렬한것이였다.

2007년에 마련된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의 채택, 이것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진로를 밝혀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애국애족의 통일의지, 숭고한 위인적풍모와 넓으신 도량이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2) 온 겨레를 평화번영과 단합실현에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2007년 10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10.4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걸음을 크게 내짚었다.

10.4선언발표이후 2007년 11월과 12월에만도 북남총리회담 제1차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북남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활발히 벌어졌으며 구체적인 합의서들이 발표되였다.

합의서들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10.4선언리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군사적보장대책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에 이어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은 더한층 고조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번영과 단합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고무적기치이며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과 단합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공화국은 2008년 새해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해서는 어느때에 가서도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과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등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참여련대와 평화통일시민련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남조선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10.4선언리행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갈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력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단합실현의 기운이 날로 높아지자 미국은 반통일보수세력을 부추겨 북남관계발전의 앞길에 또다시 빗장을 지르려고 책동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실용》의 간판밑에 2008년 2월 집권한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선 대미관계, 후 남북관계》를 제창하면서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조선당국자는 선행《정권》이 남북관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시켜 《국익》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새 《정부》는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지레대로 하여 《대북정책》을 다루어나갈것이라고 떠벌이였다.

또한 북남관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안에서 결정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용외교》라는 범주속에 북남관계를 포함시키겠다고 뇌까렸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세와의 관계속에 존립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세상에 없는 북남관계문제를 안고있는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그것마저 분렬의 원흉인 외세의 침략전쟁정책의 종속물로, 희생물로 만

든다는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였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질하면서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부정해나섰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통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벌리는 한편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과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통일교육원》을 내세워 《북리해 2008》과 《통일교육지침 2008》이라는것을 발간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훼손하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모색하자는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정책인 그 무슨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운운하면서 미국에 도움을 구걸하기까지 하였다.

2008년 4월 집권후 첫 외국행각으로 미국과 일본을 찾아간 남조선당국자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차요시된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21세기 전략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한>미동맹 3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왔는가 하면 《<한>미일의 관계긴밀화》를 떠들면서 3각군사

동맹구축을 획책하였다.

반통일보수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민족의 대의보다 저들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외세에 굴종하면서 겨레의 평화번영과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행위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침략전쟁책동을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3월 어느날 일군들에게 남조선당국자가 날이 갈수록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적인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의 단호하고도 원칙적립장을 담은 2008년 4월 1일부 《로동신문》 론평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것은 파멸뿐이다》가 발표되였다.

론평에서는 6.15이후 화해와 협력, 단합에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뒤집어엎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으며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실용외교》의 롱락물로 전락시키려는 남조선당국자의 사대매국적이며 반통일적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

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라는것, 우리는 앞으로도 6.15통일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한줌도 못되는 얼빠진자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부시고 매국역적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과 단합의 길로 나아가던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랭전상태로 되돌아가게 된것이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에게 있다는 겨레의 규탄이였고 경고였다.

5월 2일에는 《로동신문》 시사론평 《사대매국과 반북대결의 수치스러운 범죄행각》이 발표되였다.

론평은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미국, 일본행각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남조선을 대미예속에로 깊숙이 밀어넣으며 미국과의 침략적결탁을 강화한 가장 추악한 사대매국행각, 전쟁행각이며 동족을 모략중상하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며 자주통일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책동한 가장 수치스러운 반북대결행각, 반통일행각이라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뒤이어 발표된 《로동신문》 론평원의 글들에서도 남조선당국자와 군부호전세력들이 《군사적우세》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것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민족의 소중한 지향을 짓밟고 새로운 충돌과 전쟁을 불러오

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행위이며 반평화적인 처사라는것, 이미 오래전에 세상사람들로부터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는 날강도철학으로 락인되여 배척당하여온 《실용주의》를 북남관계에까지 적용하려 하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든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는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한편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낸 통지문과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신문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에 실린 군사론평원의 글,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대답 등을 련이어 발표하여 반통일적책동과 외세추종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을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언론들과 시민단체들도 북남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북을 자극한 반통일보수세력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시바삐 북과의 대화통로를 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2008년 12월 3일부)는 이렇게 전하였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간 수구보수진영이 학생들의 교과서까지 남북화합과 단결을 담고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

북적대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정보원 등 공안기관을 부활시켜 대대적인 친북세력탄압과 구속에 매달리는것을 보면 <한>반도를 반공, 반북리념대결장으로 몰고가는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전략적과제로 여기고있음이 분명하다. …

리명박<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이런 극악한 반공, 반북정책이 공포감을 조성하여 당장은 국민들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감당할수 없게 될것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한사코 부정하고 외세에 적극 추종하면서 민족대결의 길로 내달리던 남조선당국자는 평화번영과 단합실현을 바라는 온 겨레의 규탄으로 하여 결국 집권한지 얼마 못가서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버리도록 하시는 한편 겨레의 통일념원을 헤아리시여 북남관계의 앞길에 밝은 서광을 안아오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아산이 금강산에서 정몽헌 전 회장의 사망 6돐 추모행사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을 때 주체98(2009)년 8월 금강산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해당 일군들을 이 추모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신데

이어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일행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공화국을 방문한 현정은일행을 몸소 만나주시고 꼬일대로 꼬인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첫 매듭을 풀어나가는 견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통이 크게 해결해주시였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조의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하도록 하시고 방문기간 남조선당국과 대화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던 북남관계는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였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단절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말 다시 진행되고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였다.

특사조의방문이후 북남사이에 대화국면이 조성되는듯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외세는 남조선반통일보수세력을 민족대결책동에로 또다시 부추겼다.

집권하자마자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려온 남조선보수당국은 2010년 3월에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무턱대고 《북의 소행》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는 5월 24일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중단, 추가《도발》시 《자위권》발동, 《대북제재안》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등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고 북남관계차단의 《구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하여 악화된 북남관계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였다.

공화국정부는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과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등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의 허황성을 구체적인 자료들로 낱낱이 발가놓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진상을 밝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사과》만을 일방적으로 거들며 모든 북남대화를 거부해나섰다.

그리하여 북남관계는 전면적으로 차단되게 되였다.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친미사대와 민족대결의 길로 질주하던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은 2010년 11월 서해열점지역인 연평도에서 포사격도발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자기의 령토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던 조선인민군의 응당한 대응을 면치 못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선언

인 동시에 평화선언이다.

10.4선언에는 서해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해 북남린접의 경계선일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여있었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리행되였더라면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연평도포격사건은 북남사이의 무력분쟁과 첨예한 정세를 타개할 유일한 출로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공화국은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였지만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번영과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5일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련합성명에서는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것을 비롯한 4개 항목의 중대제안이 엄숙히 천명되였다.

성명의 자자구구에는 북과 남이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절세의 위인의 드팀없는 의지와 열렬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었다.

하기에 어느 한 해외동포도 자기의 글에서 《북은 그렇듯이 심각하고 첨예한 남북관계속에서도 남쪽에 정말 대범하고 아량있는 제의를 했다. 그것은 북과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것을 표명한 북의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되였다. 그 제안이 너무도 뜻밖의 놀라운것이였다.》고 하였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이 나간 다음 중대제안에 대한 공화국의 실천적의지를 보여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가 1월 8일 발표되였다.

담화에서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고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을 공식 제의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잇달아 1월 10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소장 명의로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것을 제의하며 1월 12일부터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운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들을 남조선의 해당 기관들에 통보하고 이를 TV방송과 신문으로 보도하였다.

1월 12일에는 판문점적십자련락통로를 다시 열고 정식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대화마당에 나오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과 충돌로 치닫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담아 공화국은 2011년 1월 14일 자기의 립장을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을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인민무력부장(당시)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내용의 공개서한을 남조선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1월 28일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에 남조선당국이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어느것은 되고 어느것은 안된다는 식의 우롱과 모독을 일삼는가 하면 민간인들의 북남래왕과 접촉에 빗장을 지르며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주장하는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을 친북으로 몰아 박해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대화와 협상을 호소하였다.

공화국은 새해공동사설의 조국통일부문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대화와 접촉을 제기하는 편지와 확스 등을 2월 2일 남

조선의 여야정당들과 단체, 개별적인사들에게 보내고 7일에는 국제우편으로도 발송하였다.

통일애국의 열망이 담긴 호소문은 발표되자마자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아낌없는 찬동을 받았다.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켜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전진해나가는 평화번영과 단합의 새로운 력사를 마련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였다.

서울에 나간 특사조의방문단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한 길에서 한번 손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한품에 안아 애국의 삶으로 빛내여주시는분이 바로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이전 남조선당국자였던 김대중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다.

2000년 6월 평양상봉의 당사자인 김대중은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렬된이래 평양을 찾아온 첫 남조선당국자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기가 교체되는 력사적인 분기점에서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공화국을 찾아온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절세의 위인을 뵈옵는 첫 순간부터 그이의 위인적풍모와 소탈하신 인간적매력에 크게 감동되였던 그는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여러 기회에 그이를 만나뵈옵던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군 하였다.

그러던 그는 건강이 악화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던 주체94(2005)년 8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서울에서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있었는데 축전에 참가한 북측대표단이 그를 병문안하러 찾아왔다.

대표단성원들은 김대중을 만난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울에 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꼭 만나 자신의 인사를 전하고 오라고 당부하시였다는것과 좋은 계절에 부인과 함께 다시 평양에 오라고 초청하시였다는것을 정중히 전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한번 맺은 인연을 잊지 않고 이렇듯 직접 대표단을 보내시여 병문안까지 해주시는 절세의 위인의 인정미에 그가 어찌 감격해마지 않았으랴.

그러던 그는 2009년 8월 18일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대중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시고 그의 사망을 애도하여 조전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고위급특사방문단을 서울에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이 조치들에는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여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었다. 온 겨레의 념원대로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대범하고도 넓으신 도량이 응축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조의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였다.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은 특사조의방문단의 파견과 관련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8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나간 특사조의방문단은 김대중의 빈소를 찾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화환을 정중히 진정하였다.

그리고 김대중의 미망인인 리희호녀사를 만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보내신 조전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조전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

와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일

주체98(2009)년 8월 19일》

조전을 전달받은 리희호녀사는 너무도 감격하여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남편의 뜻을 이어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것을 말씀드려달라고 하였다.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방문은 남조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민들은 특사조의방문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김대중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시한데 대해 통일기를 흔들고 환호를 올리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면서 《북에서 방문단이 왔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격스럽다.》,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저저마다 자기들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의 《KBS》, 《MBC》, 《련합뉴스》를 비롯한 방송, 통신, 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의 북남관계악화속에서도 김대중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전과 화환, 특사조의방문

단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내주신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통이 큰 결단이라고 전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대중이 2005년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가 입원한 병원에 일군들을 보내여 병문안하도록 해주시였고 이번에 그가 사망하자 생전에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고 추억해주시였다고 그이의 은정에 대하여 세세히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6.15공동선언의 체결당사자인 김대중의 사망에 조문단을 파견하심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시려는 뜻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이 땅 남쪽과 해외에서 살아가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북과 손을 잡고 하루빨리 통일조국으로 내달려갈 때이다,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민족을 위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 반민족, 반통일의 과오를 범한 사람들도 지금의 정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더 크게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에 나간 공화국의 특사조의방문단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당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진행하였다.

특사조의방문단은 남조선당국자를 만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데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북남관계가 우리 민족의 리익에 맞게 발전해나갈것을 한결같이 희망하였으며 세계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해빙기를 맞이한 북남관계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사회 각계와 광범한 인민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리행할것과 특히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하지만 외세굴종과 매국배족에 쩌들은 남조선보수세력의 반통일적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투쟁은 아직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하였다.

변함없이 안겨주신 믿음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믿음을 안겨주시며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은 현대그룹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일가에도 진하게 어려있다.

민족의 공영공리를 위해 이바지하려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일가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시대와 더불어 그들을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들로 온 겨레앞에 내세워주시였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주체94(2005)년 7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날 금강산에 와있는 현대아산 전 회장이였던 정몽헌의 미망인인 현대그룹 현정은회장과 그의 딸 그리고 현대아산 부회장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몽헌선생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2003년 8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의 한사람인 정몽헌회장이 《한나라당》(당시)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비렬한 음모로 뜻밖에 사망하였을 때 몹시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그의 미망인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정말 아까운분이였다고 다시금 추억해주시니 절세의 위인께서 지니고계시는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동포애에 일행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현정은회장에게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가문은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민족의 공영공리를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섰던 한 개인기업과의 관계를 첫사랑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남다른 믿음을 안겨주시는 절세의 위인의 은정에 일행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통이 크게 벌려나갈 마음을 가다듬었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정은회장일행을 만나주시고 대를 이어가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저저마다 전하였다.

《금강산을 방문중인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이 오늘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대북사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한>의 민간기업인을 만난것은 지난

2000년 9월 현정은회장의 남편인 고 정몽헌 현대아산 리사장을 만난 이후 약 5년만에 처음이다.》(《CBS》 2005년 7월 16일, 《KBS》 2005년 7월 16일)

《엊그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량쪽실무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였다.

시아버지인 정주영회장과 남편인 정몽헌은 이제 가고 없지만 며느리인 현정은회장이 그 자리에 대신 서있다. 오른쪽에는 손녀딸까지 서있다.》(《조선일보》 2005년 7월 21일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현대가의 각별한 인연이 다시 화제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도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05년 7월 18일부)…

그런데 단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던 북남관계를 도륙내려고 날뛰는 남조선당국과 내외반통일보수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랭각되게 되였으며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앞길에는 차단봉이 드리워지게 되였다.

현대그룹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고 현정은회장은 북남협력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출로를 찾아 모대기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가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하도록 해주시였다.

여기에는 겨레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드리운 어두운 장막을 밀어내고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을 계속 이끌어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8(2009)년 8월중순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일행을 만나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와 담화를 나누시며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8월 17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현대그룹사이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일행을 오랜 시간 만나주시고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쌍방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공동보도문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의 각계층과 세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현정은회장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신셈이라고 하면서 현대그룹과 현대가문에 돌려주시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정녕 대를 이어가며 남조선의 한 기업가일가에게 변함없이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의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게 해준 자양분이였고 힘의 원천이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시고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난 때로부터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무릇 세월의 흐름은 모든것을 망각의 이끼속에 묻어버린다고 일러온다.

하지만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이 땅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세월이 흘러가도 민족사와 더불어 영구불멸할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이다.

민족의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이렇듯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

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라고 하시며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7(2018)년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여 대결과 적대의 악화일로를 걷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길로 전환시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확고한 조국통일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으로 여러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마련하시여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였다.

《대범하신 백두혈통 **김정은**위원장님》, 《**김정은**위원장님은 호탕하시다.》, 《**김정은**위원장님 조국통일준비 완료》,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훌륭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자!》, 《하루빨리 통일이 되여 **김정은**위원장과 단 한번이라도 사진을 찍어보고싶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위인상과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확인하고 터치는 남조선인민들의 이 목소리들에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그날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몇해전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 《희망련대》에는 이런 글이 실렸었다.

《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우심해도 머지않은 앞날에 우리 민족은 남북민중모두가 한마음으로 떠받들어올린 민족의 태양이 분렬의 어둠을 몰아내고 삼천리강토를 밝게 비치는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그렇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우리 겨레는 민족의 구심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쓸어버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필　자　림 이 철, 김 경 호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2월 9일
발　행　주체111(2022)년 2월 12일

ㄱ-1526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52-4

ISBN 978-9946-31-152-4